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朴 時 翼

嶺南地域 名文古宅의 風水地理 考察

The Consideration of Topographical Favorable
Location at distinguished old house in Young Nam region

2 0 0 6 年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開發 및 管理專攻

李 世 仁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朴 時 翼

嶺南地域 名文古宅의 風水地理 考察

The Consideration of Topographical Favorable
Location at distinguished old house in Young Nam region

위 論文을 不動產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 0 0 5 年 12 月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開發 및 管理專攻

李 世 仁

李 世 仁의 不動產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 0 0 5 年 12 月

심사 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 II 장 풍수지리의 철학적 배경	3
제 1 절 풍수지리의 의미와 용어해석.....	3
1. 풍수지리의 개념.....	3
2. 풍수지리의 이론적 바탕.....	4
3. 풍수지리의 목적.....	5
제 2 절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	6
제 3 절 삼신오제사상(三神五帝思想)	10
1. 삼신사상.....	10
2. 오제사상.....	11
제 4 절 삼신오제사상과 음양오행설의 관계.....	13
제 III 장 풍수지리의 이론체계.....	14
제 1 절 용(龍)	14
1. 용의 일반적인 형태	14
2. 용의 앞과 뒤	16
3. 용의 3격과 4체형	16
4. 내룡의 형태와 영향	17
5. 용의 종류	18
제 2 절 혈(穴).....	19
1. 혈의 발생.....	19
2. 혈의 구조와 종류	20
3. 혈 주변의 지세분석	21
제 3 절 사(砂).....	22
1. 청룡과 백호	22
2. 주작	24

(1)안산	24
(2)주산	25
3. 현무	25
제 4 절 수(水)	26
1. 물의 기운	26
2. 물의 형태	27
3. 물이 흐르는 방향	28
4. 수구	28
제 IV 장 영남지역의 풍수지리.....	30
제 1 절 영남의 지령과 인물	30
1. 영남의 인재들	32
2. 박정희 대통령	34
3. 호암 이병철	35
제 2 절 영남의 산하와 풍수	37
1. 대구의 풍수	39
2. 부산의 풍수	40
3. 경북의 풍수	42
제 V 장 경북·영양의 주실마을의 호은종택.....	44
제 1 절 주실마을의 내력	44
1. 인문지리적 환경.....	44
2. 마을의 형성과 전개.....	48
제 2 절 주실마을의 인재들.....	49
1. 근대를 향한 주실마을의 인물들	50
2. 해방을 맞은 주실마을의 인물들	52
3. 오늘날의 주실마을의 인물들	53
제 3 절 주실마을의 풍수 개요	55
제 4 절 호은종택의 풍수지리적 분석.....	57
1. 주산의 풍수적 해석(부용봉)	58
2. 청룡의 풍수적 해석	59
3. 백호의 풍수적 해석	59
4. 조산의 풍수적 해석 (일월산).....	60

5. 안산의 풍수적 해석	61
6. 수구의 풍수적 해석	63
7. 가옥의 배치와 구조.....	64
제 5 절 호은종택의 풍수입지에 대한 종합분석	66
 제 VI 장 경북 경주 최부잣집	69
제 1 절 경주 최부잣집의 내력	69
1. 가계	69
2. 부의 형성	70
제 2 절 최부잣집의 철학과 경륜.....	71
1. 유훈	71
2. 가훈	72
3. 육연	73
제 3 절 교동 마을의 풍수지세	74
제 4 절 최부자집의 풍수지리적 분석	76
1. 조산의 풍수적 해석(남산)	76
2. 배산임수	77
3. 안산의 풍수적 해석	79
4. 건물의 구조	81
 제 5 절 최부잣집의 풍수입지에 대한 종합분석	82
 제 VII 장 결 론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0

〈도표 목차〉

그림 1. <오행의 각각의 의미>.....	8
그림 2.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10
그림 3. <명당의 지세>.....	15
그림 4. <사신사>.....	23
그림 5. <주실마을의 전경>.....	44
그림 6. <주실마을의 지세>.....	47
그림 7. <영양 주실 마을의 위치도>.....	47
그림 8. <주실마을>.....	56
그림 9. <주산 부용봉>.....	58
그림 10. <일월산 전경>.....	61
그림 11. <호은중택 안산 문필봉>.....	62
그림 12. <주실마을 수구>.....	64
그림 13. <호은중택>.....	65
그림 14. <호은중택 평면도>.....	68
그림 15. <최부자집의 창고>.....	70
그림 16. <경주주변산세도>.....	74
그림 17. <경주최부자집 앞에 있는 고택 안내문>.....	77
그림 18. <최부자집에서 본 조산과 안산의 모습>.....	80
그림 19. <교동법주집 사랑채에서 본 조산과 안산>.....	80
그림 20. <최부자집 안채의 모습>.....	81
그림 21. <안채배치도>.....	82
그림 22. <최부자집의 모습>.....	83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풍수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 동안 쌓아온 땅에 대한 깨달음과 자연에 대한 세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만든 삶의 지혜이다. 풍수는 기(氣)라는 우주적 환경의 흐름에 따르면서 지리, 기후 등의 환경요인과 인간의 거주 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미시적으로 보자면 주거의 입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거시적으로 해석하자면 인간과 환경의 관계 설정 방식을 설명하는 체계 또는 자연에 대한 해석 체계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땅의 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풍수에 따라 헤아리고, 이에 맞춰 삶의 터전을 가꾸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삶의 터전을 정하고 가꿀 때 가장 중요시 하였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건강이었다. 건강한 삶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터의 건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건강한 터란 어떤 곳일까? 먼저, 공기가 적절히 통하고 맞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풍수에서는 이를 ‘바람을 갈무리 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의 맥이 어디서 뻗어 와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따진다. 그런 다음 그 산의 어느 부분에 기대고, 어느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길도 중요하다. 물은 산과 산 사이를 흐른다. 따라서 산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기 마련이다. 산과 물이 만나는 땅이 바로 명당이다. 야트막한 산이 마을 뒤에 우뚝 솟고 그 아래 산 발치에 안기듯이 들어선 마을, 그리고 마을을 휘감듯이 굽이쳐 흘러가는 앞개울, 이런 모습이 명당의 전형이다.

즉, 명당은 산과 물이 짜임새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땅을 말한다. 햇빛을 많이 받고 찬바람을 피할 수 있어 따듯하고 밝은 곳,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으며 온갖 동식물이 잘 자라나는 곳, 몸과 마음이 포근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터를 잡아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풍수에는 담겨져 있다.

이러한 자연친화론적인 ‘풍수지리’는 근래에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국토개발, 건축, 인테리어, 환경 등 다방면에서 풍수지리가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인 경북 영양 주실마을의 호은종택과 경북 경주 최부잣집은 풍수지리를 적용하여 집터와 집을 지은 곳으로 오늘날 많은 이들로부터 명문가로 인정받을 만큼 명당 발복한 사례이다.

주실마을의 호은 종택은 산간오지 산골마을에서 유능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후손들이 사회 여러 분야의 교수를 배출한 명문가이다. 또 주실의 인물들은 세속적인 출세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가문의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한국사회에서 독보적인 자취를 많이 남겼다.

최부잣집은 9대동안 진사를 지내고 12대동안 만석을 한 집으로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진 집이다. 최부자는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9대에 걸쳐 진사의 위치를 가진 양반계층으로서 자손대대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교만과 사치를 멀리하였다.

또한 정당하게 부를 형성하고 또 그 부를 적절하게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은 부자이며, 또 부의 소멸과정 역시 그 부의 남용과 오용 내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과도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국가의 광복을 위하여 전 재산을 받쳐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남은 부는 국가를 흥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투자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가문들이 명문가가 된 데에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학연, 혼인 등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외에도 필자는 풍수지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명문가문의 풍수지리적 위치를 고찰하여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경북 영양의 호은종택, 경북 경주 최부잣집의 기본적인 지세분석과 우리나라 전통명문가의 양택 주변에서 절반이상 볼 수 있다는 문필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풍수가에서는 문필봉이 정면에 있으면 공부 잘하는 학자가 많이 나온다고 보며 문필봉이 안산으로 있는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 그 안산에서 방출하는 기운을 받아 문필가나 학자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고택을 중심으로 위치한 사신사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며, 그 외에도 수구, 가옥의 배치와 구조, 명문가들이 낳은 인재 등을 연구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풍수지리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각종 풍수지리관련 전문서적과 인터넷을 이용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사진사와 수구 등을 형국론으로 조사·분석한 후 선행된 자료를 참조하여 가옥의 배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명문가들의 내력과 가훈, 배출된 인걸들까지 살펴봄으로써 두 명문고택의 풍수지리적 위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II 장 풍수지리의 철학적 배경

제1절 풍수지리의 의미와 용어해석

1. 풍수지리의 개념

풍수란 용어는 장풍득수를 줄인 말로써 천지가 만상을 잘 지탱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는 산수의 지세, 지형을 뜻하며 땅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과 길흉화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이다. 즉 음양의 기가 땅속에서 잘 조화되면 생기가 되며 이 생기가 통하는 기맥이 있어 생기가 농후 왕성하는 곳에 주거지나 묘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수지리설이란 음양론과 오행성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목적으로 삼는 상지 지술학이다. 후에 효의 관념이나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으로 속신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일종의 토지관의 표출이며 풍수설의 구성은 산, 수, 방위, 사람등 사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¹⁾

한편 풍수는 사람이 집을 짓고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땅을 갈아 곡식을 심어 먹고 살다가 죽어 땅에 묻히는 한, 죽어 묻히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좋은 땅을 찾으려는 욕구는 농경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사회에서 오늘날보다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대가 흐르고 사회가 바뀔에 따라 그 시대, 그 사회의 사상과 관념

1)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9, p32

의 바탕 위에서 좋은 땅을 설명하게 되었고 이것이 풍수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 조상들은 거의가 풍수적인 관념에 따라서 집을 짓고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묘 자리를 썼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다.²⁾ 그런 점에서 풍수를 미신이라 하여 한마디로 간과해 버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2. 풍수지리의 이론적 바탕

풍수지리는 만물의 근원을 기(氣)라고 본다. 기는 세상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기초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 있는 것, 곧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기로 만들어지며 기로 삶을 영위하며 기가 다할 때 죽음을 맞는다.

사람은 기의 모임이다.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 기듯이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다. 사람의 육체는 음기와 양기로 구성되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는 인식은 고대 천문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잉태되는 순간 하늘의 기, 곧 천기(天氣)를 받게 된다. 그 가운데 해와 달 수·화·목·금·토 다섯 별을 비롯한 무수한 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으로 잉태된 사람은 조상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땅의 기운을 살펴 살자는 생각에서 체계적인 사상과 이론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풍수지리이다.

『주역』에서는 우주 생명의 주인이며 원리를 태극(太極)이라 한다.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 졌으며, 또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퇴계 이황은 우주 생성의 근원을 기로 보고, 그 기를 태극에서 생겨난 ‘일원지기(一元之氣)’라 하였다. 천지와 삼라만상은 모두 기에 의해 생기고 자라며 죽음에 이른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 기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분해되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의 원천인 기는 사람 몸 안에도 흐르고 땅에도 흐른다. 그 중에서도 생기(生氣)는 음양과 오행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가장

2) 서문중, 「서울의 地勢와 宮闕 立地에 대한 風水地理學的 分析研究 : 景福宮, 昌德宮, 宗廟를 中心으로」, 한성대부동산대학원석사논문, 2004, p4

본질적인 기로, 만물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사람도 음양오행의 생기에 따라 태어나 자라고 늙고 죽어간다. 따라서 생기를 받고 사는 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된다. 이처럼 풍수 사상은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의 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발전이나 성장 역시 자연에서 기를 흡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풍수에서 ‘명당’이란 ‘생기’가 흐르는 땅이다. 집을 짓거나 묘 자리를 택할 때 풍수를 따지는 것은 좋은 땅의 기를 받자는 것이다.

풍수에서는 여러 기가 결합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기운을 만들면 길한 것으로, 인간에게 나쁜 기운을 만들면 흉한 것으로 풀이한다. 그러므로 풍수에서 생기가 흐르는 좋은 땅이란 간단히 말해, 음과 양이 조화로운 땅이다. 산과 물, 음과 양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곳에서는 좋은 생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어느 한쪽 기운만 큰 곳에서는 나쁜 기운이 나오기 때문이다.

풍수지리는 지기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땅에 인간이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땅의 기를 느껴서 자신과 잘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땅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 등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지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풍수지리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풍수지리 이론의 3요소로 꼽히는 산·수·방위를 살피는 것도 그것들이 여러 가지 기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에서 산의 형태와 품격을 나누는 데도 이들 각각의 기가 그 주변에 사는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가 그 기준이 된다. 인간에게 이로우면 길한 것이며, 해로우면 흉한 것이다.

3. 풍수지리의 목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시라도 멈춤이 없이 계속 변한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변화는 법칙을 알고 대처 한다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주에는 인간과 만물의 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 이것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의 생식과 변천에 변할 수 없는 법칙이 있게 마련이다. 이 법칙을 동양에서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법칙이라 한다. 이런 사실의 밑바닥에는 우주전체가 하나의 잘 짜여진

조직으로 어떤 규칙아래 움직인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도 정해진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법칙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본다.

제2절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

음양오행사상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 철학의 기본 이론으로써 한의학이나, 사주, 침술, 관상 등 각종 동양철학들이 대부분 이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풍수지리 사상도 『주역』과 음양오행설에 그 논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음양오행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풍수지리 사상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양오행사상의 기원(起源)이 언제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음양설이 구체적으로 정비된 것은 기원전 4세기의 초엽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오행사상은 『서경(書經)』의 전 「홍범(洪範)」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즉 음양설과 오행설은 기원을 달리하였으나 후대에 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양설은 상반(相反)되는 요소가 상호 연관되면서 순환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상반과 응합(應合)이라는 음양사상으로 구체화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상반은 음과 양의 대립이고, 응합은 상반이 단지 반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양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모든 만물에 존재하며 만물의 성격과 질을 규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있듯이 양이 있기에 음이 있으며, 음이 있기에 양이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음양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결국 음양은 상반되지만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³⁾

만물은 음양의 상호 의존관계에 의하여 음이 강하면 음의 성격이 강하고, 양이 강하면 그것의 특성이 돋보이는 식으로 표출된 현상이라고 본다. 음양은 서로 한 요소를 보강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며 그들의 주기적 변화와 상호 보완작용에 의하여 세상은 변하기도 하고 세계질서가 성립되기도 한다고도 본다.

음양설과 오행설이 서로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철학이 모두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p45

이러한 공통점으로 두 이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음양설과 오행설이 동일한 이론으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음양설과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氣)다. 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된 기가 모이면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기로 분산된다. 기에는 양기와 음기가 있다. 양기는 하늘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하며 음기는 땅에서 발생하는 기를 말한다. 양기와 음기가 결합되면 하나의 생명체로 작용한다.

오행사상의 근원은 천문사상(天文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의 생활이 모두 하늘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다. 별이 사람의 운명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점성술이 그 중 하나이며, 음양오행 이론도 이러한 천문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달력의 일주일은 신기하게도 음양오행 사상과도 일치하는데, 음양오행에서 양과 음은 크게 해와 달의 기운으로 구분되며 해는 뜨거워서 양의 기운으로, 달은 차가워서 음의 기운으로 상징된다.

그래서 해와 달은 음양의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태양과 달은 밝고 어두움으로 음양의 기준이 된다. 한 주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고 이는 태양이다. 둘째 달은 월요일, 이는 달을 의미한다.

그 다음 화, 수, 목, 금, 토는 각각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의 다섯 개 별을 나타낸다. 곧 일주일을 구성하는 일(日)부터 토(土)까지는 하늘에 있는 일곱 개 별의 이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즉, 오행이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수(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이다.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을 갖는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중력이하고 하며, 오행 가운데 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물은 마치 겨울의 기운과 같다. 겨울에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고 생명체는 활동력이 거의 정지된다. 이것은 다음기간까지 생명력의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목(木)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을 말한다,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다. 목의 기운은 물리학상 원심력에 해당한다. 목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한다. 봄에는 모든 생명체가 희망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 솟아오르는 생명력이 바로 목에 해당한다.

화(火)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사방팔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한다. 불은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태양열 같은 성

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열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불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것도 그 힘을 확산하려는 성질이다.

금(金)은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다. 가을이 되면 모든 물체는 쌀쌀한 기운 때문에 움츠러 든다. 중심점을 향해 움츠러드는 현상이 금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구심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은 가을의 기운에 해당한다.

토(土)는 수, 화, 목, 금 의 기운을 끌고루 갖고 있는 기운이다. 토는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서로 다른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토는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쯤을 의미한다.

오 행	방 위	수	계 절	색	사신사
수	북	1,6	겨울	검은색	현무
화	남	2,7	여름	붉은색	주작
목	동	3,8	봄	푸른색	청룡
금	서	4,9	가을	흰색	백호
토	중앙	5,10	변절기	노락색	사람

그림 1. <오행의 각각의 의미>

다섯 기운은 각각 고유한 설질은 갖고 있으면서 다른 기운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관계는 크게 상생과 상극으로 나뉜다.

상생(相生)이란 한 기운이 다른 기운을 북돋아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을 일컫는다. 물은 나무가 살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물과 나무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다. 이를 수생목(水生木)이라고 한다. 나무가 있으면 쉽게 불을 만들 수 있다. 곧 불은 나무를 통해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나무와 불은 서로 돕는 관계다. 이를 목생화(木生火)라고 한다. 불이 타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재와 같은 흙은 불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흙과 불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며 이를 화생토(火生土)라고 한다. 흙속에서 단단한 쇠가 이루어지는데 곧 쇠는 흙에서 그 기운이 형성된다. 이 또한 쇠와 흙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며 이것을 토생금(土生金)이라고 표현한다. 쇠와 물

의 관계를 보면 금속 표면에는 물방울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렇게 단단하고 차가운 물질에서는 기운이 수축해서 물이 생기는 만큼, 금속과 물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며 이를 금생수(金生水)라고 표현한다.

정리하면, 물은 쇠 기운에서 생겨나고 나무에 기운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물은 쇠와 친하고 나무와도 친하다. 나무는 물에서 그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은 불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나무는 물과 불의 기운과 잘 어울린다. 불은 나무에서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은 흙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불은 나무와 흙과 친하다. 금은 흙에서 기운이 형성되고, 자신의 기운으로 물의 기운을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금은 흙 기운, 물 기운과 친하다.

한편 오행 각각의 기운은 서로 싫어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상극(相剋)이라 한다. 불의 기운은 물을 통해 억제된다.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한테는 이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수극화(水剋火)라고 한다. 쇠는 매우 강하지만,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면 무력해 진다. 이러한 현상을 화극금(火剋金)이라고 한다. 나무의 기운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려는 기운이지만, 도끼나 쇠와 같이 강한 기운으로 잘려진다. 이러한 현상을 금극목(金剋木)이라고 한다. 흙의 기운은 모든 기운으로 뭉쳐져서 정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이에 비해서 나무는 흙에서 솟아오르려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목극토(木剋土)라고 한다. 물은 쉬지 않고 흐르려 하지만 이런 물의 기운도 제방을 쌓으면 그 흐름이 정지된다. 곧 물의 기운은 흙의 기운으로 억제된다. 이러한 상극관계를 토극수(土剋水)라 한다.⁴⁾

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p45~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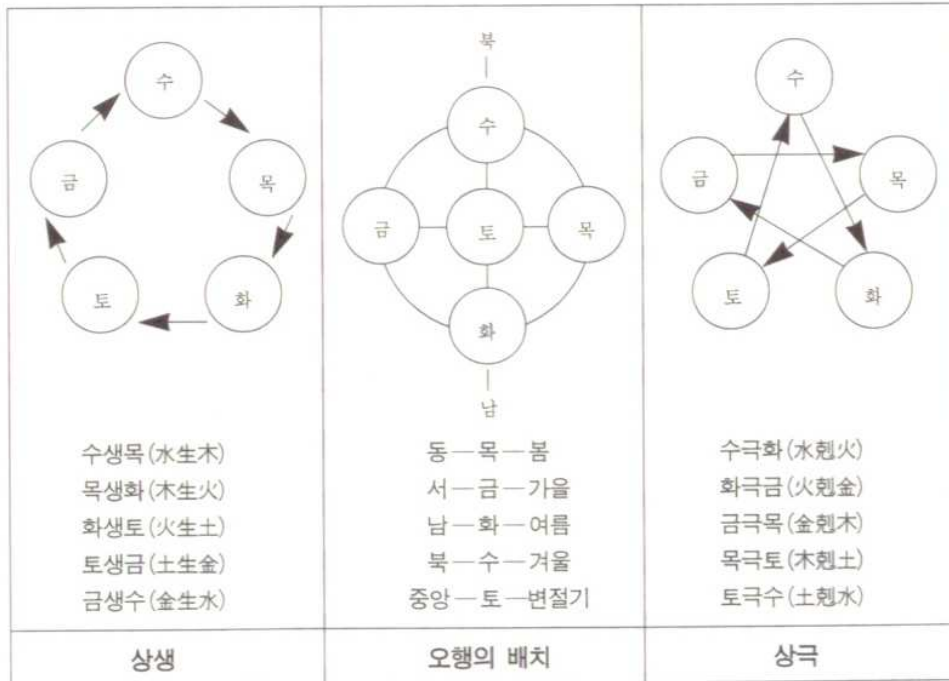


그림 2.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제3절 삼신오제 사상

1. 삼신사상

삼신사상에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 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사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교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자기 몸을 바로 하고 가정을 일으키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유자(儒子)가 학문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유교이론은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세계나 내세에 대한 해석은 부족한 감이 있다. 유교 사상의 중심 이론서인 『주역』은 만물이 생성

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본질인 태극은 음과 양으로 나뉘며 이 둘은 항상 변화한다고 본다. 그러나 음과 양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부분인 태극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좀 더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변화하지 않는 태극과 변화하는 음과 양의 세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반면 불교에서는 현실, 곧 물질세계는 순간적으로 소멸되므로 무시하고 오직 마음의 세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선사상이나 도교는 인간의 본질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해석한다.

삼신 사상은 현실 세계로 영혼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영혼의 세계가 현실세계로 나타난 것이 현상 세계다. 영혼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의 세계인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죽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사람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 영혼이 육체를 얻은 기간이므로 축복의 기간이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인 순간이다. 희노애락(喜怒哀樂)은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삼신 사상에는 유교, 불교, 신선 사상의 세 가지 종교 이론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삼신에게 감사드렸고, 사람이 늙어 죽으면 삼신을 통해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사람이 죽은 집에서는 삼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을 데리고 가는 먼 길을 편안하게 배웅하기 위해서 밥 세 그릇과 신발 세 개를 문 밖에 두어 공양하였다. 삼신은 생명체를 이루고 분해하는 조화의 힘을 갖고 있다. 삼신의 상징은 삼태극(三太極)이다.

삼태극 문양은 신라 시대의 왕가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 있으며 조선 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한국의 각종 고전 축물의 연못에서는 대부분 삼신사상이 표현되어있다. 5)

2. 오제사상

오제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 서, 남, 북, 중앙 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다. 또한 각각 고유의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

5) 박시익, 전계서, 1999, p45~p50

갈, 곧 오색(五色)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파란 옷을 입고 있어 청제(靑帝)라고도 하며, 여러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제는 목성에 위치하고 있다. 동녘의 신 청제는 동쪽의 기운처럼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력을 갖고 탄생하게 한다. 봄에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동제의 대표기능이다.

남쪽에 있는 신은 언제나 붉은 옷을 입고 있어서 주제(朱帝) 또는 적제(赤帝)라고도 한다. 뜨거운 태양처럼 청제가 만들어 좋은 기운을 확산시켜 널리 뿌리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하늘 서쪽에 위치하면서 하느님의 힘을 대신하는 신을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백제(白帝)라고 한다. 백제는 주제가 번성시킨 생명체의 확산 기운을 정지시키며, 다음을 위해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금성에 위치한다.

하늘 북쪽에 위치한 신을 현제(玄帝)라고 한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다. 현제는 백제가 죽인 생명체를 편안히 휴식하게 하는 신이다. 그 기간은 다음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수성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신은 황제(黃帝)다. 황제는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며 노란 옷을 입고 있다. 황제의 기운은 사방의 기운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넷보다 가장 중심적인 기운이다. 토성에 위치한다.

하늘의 기운인 기(氣)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개 방위로서 구분되고, 각각의 기(氣)는 목·금·화·수·토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며, 이들 기는 순환하면서 다른 종류의 기로 변화한다. 오행의 첫 번째 기운인 물속에서는 어류가 살게 되고, 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동물들은 조류이고, 나무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생물은 식물이며, 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생명체는 동물이다. 흙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생명체는 사람이다.

이러한 다섯 기는 순환한다. 물은 나무로 변하고, 나무는 불로 변하며, 불은 흙으로, 흙은 쇠로, 쇠는 다시 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와 순환의 성질을 생명체에 적용하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의 영혼이 회전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영혼은 계속 순환하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반면에 생명체가 다음 생명체로 환생하기보다는 본래 모습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때는 상생과 반대 방향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죽으면 수생목(水生木)에 따라 나무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생수(金生水)에 의해 짐승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흙에 해당하므로 죽어서 토생금(土生金)에 따라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이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할 때는 화생토(火生土)이므로 사람 이전 생명체인 새로 환생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상생에 반대 되므로 역순이라고 본다.

이 사실은 다섯 종류의 생명체가 한 형제임을 뜻한다. 각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으며 열매나 채소를 먹거나 동물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으므로 동식물들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간다. 또한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동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영혼의 순환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⁶⁾

제4절 삼신오제사상과 음양오행설의 관계

음양 이론은 『주역』에서 그 근원을 볼 수 있다. 『주역』은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기운이 양과 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음양 사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의 기본이 되는 땅과 양의 기본이 되는 하늘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런 이원적인 해석은 삼신 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삼신 사상에서는 자연을 천일(天一)·지일(地一)·태일(太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천일은 하늘의 커다란 기운을, 지일은 땅의 커다란 기운을, 태일은 생명력의 근원인 영적인 힘을 말한다. 영혼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결합해서 생명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음양 이론에서는 생명력을 단순히 하늘과 땅 두 기운이 결합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천(天)·지(地)·태(太)의 삼신적인 구분에서 천지를 음양 이론에 따라 양분하는 법이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음양설의 근원은 삼신사상에 있고 오행설의 근원은 오제사상에 있다.

6) 박시익, 전게서, p51

제 III 장 풍수지리의 이론체계

제1절 용(龍)

간룡법이란 용의 흐름을 보고 산이 생기가 흐르는 산인지 죽은 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살아 있는 용처럼 산맥이 끊어지지 않고 생기 넘치게 뻗어 있으면 좋은 용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용의 종류로는 용의 대소, 용의 고저, 용의 원근, 용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원용과 지용의 구별로서 주산의 가장 큰 줄기를 □□원룡□□이라 하고 그 원룡에서 분지된 용을 지룡이라고 한다.

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룡과 사룡의 구별, 용의 앞과 뒤 구별 등이 중요한 것으로 용의 핵심은 산의 앞에 위치한 생룡을 찾는 것이 용을 찾는 핵심인 것이다.

1. 용의 일반적인 형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龍)’이란 산과 능선을 말한다. 따라서 지세의 기운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용의 기운을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혈을 찾을 수 있고, 지세의 기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수에서 산과 능선을 용이라고 말한 것은 산과 능선이 갖고 있는 신비하고 강한 기운 때문이며 산의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한 흐름을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형상과 같이 본 것이다.

지세를 분석할 때, 산봉우리의 기운만을 분석할 때는 ‘봉’이라고 부르지만, 산봉우리를 비롯해 전체 능선의 기운을 분석할 때는 ‘용’이라고 한다. 용은 산맥의 표면 형태고, 기운은 맥 속에 흐르는 힘이다. 따라서 지세를 분석하는 것은 용을 통해 흐르는 기운의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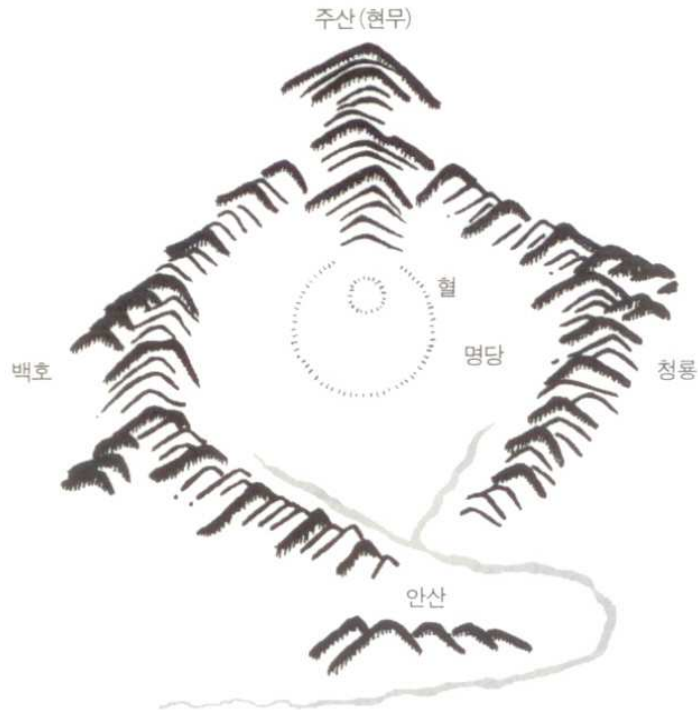


그림3. <명당의 지세>

산 정상에서 출발한 용이 혈에 이르기까지는 직선 형태와 곡선 형태 두 가지가 있다. 직선적인 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약간의 변형을 갖고 있다.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운이 기울지 않으며 앞으로 진행하는 직선 형태의 용은 ‘중심룡’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곡선적인 용이란 산 정상에서 혈까지 커다란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용으로, 곡선 형태에 따라 좌선룡(左旋龍)·우선룡(右旋龍)·혼합 곡선룡 등으로 구분된다.

좌선룡은 주봉에서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마치 사람의 왼쪽 팔과 같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곡선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우선룡이란 주봉에서 내려온 용이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곡선의 방향이 바뀌면서 연결되는 용을 말한다. 혼합 곡선룡은 산의 주봉에서 연결된 용이 처음에는 좌선을 한 뒤에 다시 우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좌선과 우선의 변화를 갖고 있는, 곧 ‘S’자 모양을 한 용을 말한다.

혈은 중심룡이나 곡선룡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혈을 이루고 있는 지세에서 혈은 중심룡에, 청룡은 좌선룡에, 그리고 백호는 우선룡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이다.

2. 용의 앞과 뒤

용은 산봉우리에서 시작해서 능선을 이루며 평탄한 들판을 향해 조금씩 낮게 내려가기도 하고, 물이 있는 쪽을 향해 내려가기도 한다. 용의 앞면은 비교적 지면이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서 아름답고 밝은 빛을 띤다. 그러나 용의 뒷면은 험한 바위가 튀어나와 있어 지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땅색도 어둡고 음산하다.

좌선룡일 경우에는 용에서 내려다봤을 때 오른쪽이 앞면이고, 왼쪽이 뒷면이다. 반대로 우선룡일 경우에는 오른쪽이 뒷면이고 왼쪽이 앞면이다. 지세의 기운을 분석할 때 용의 앞뒤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의 앞이 생기가 있어서 명당을 이루므로 집터를 선정할 때는 용의 앞을 골라야 한다. 용의 뒷면은 흉가가 생기기 쉽다.

3. 용의 3격과 4체형

용의 형태와 기운은 세 가지 품격과 네 가지 체형으로 구분된다. 품격은 크게 주인격·보조격·배반격으로 나뉜다.

주인격 용은 주인격 산과 같이 기운이 왕성하고, 용의 변화가 아름다워 혈을 이루는 용을 말한다. 주인격 용 옆에는 반드시 보조격 용이 있어서 주인격 용의 기운을 보조하는데, 명당 지세에서 주산과 주룡은 주인격 용에 해당한다. 주인격 용은 주산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내려오는 용으로, 주변용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인격 용이 있는 지세에서는 명당이 형성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인물이 배출된다.

보조격 용은 기운이 부족하여 혈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인격 용에 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격 용은 명당을 향해 절하는 자세로 공손하게 마주 보고 있는데, 명당 지세에서 청룡이나 백호는 보조격 용의 대표 형태이다. 보조격 용이 있는 지세에서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큰일을 이룬다.

배반격 용은 용의 뒷면, 곧 등을 보이고 있는 용으로 자기 기운은 명당

쪽으로 보내지 않으면서 명당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이런 지세에서는 이웃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심이 좋지 않다. 큰 인물이 배출되지 않는다.

용의 체형은 용에 흐르는 기운을 청탁(淸濁)과 길흉(吉凶)의 성질로 해석하기 위해 구분하는데, 용의 단면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강체·중체·약체·병체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강체는 한옥의 수키와를 엮어 놓은 것처럼 둥그렇게 솟아오른 형태로, 좌우 균형이 알맞고 적당하게 탄력을 이룬 능선을 말한다. 강체인 용은 깨끗하고 강하며 여유 있는 기운이 통과해서 혈과 명당을 이룬다.

중체는 단면은 좌우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강체 보다는 힘이 여유롭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중체인 용에는 깨끗한 기운이 흘러 혈과 명당을 이룬다.

약체는 단면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나, 좌우 경사면에 근육이 부족해서 뽀족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기운이 깨끗하지만 강체나 중체에 비해 약하다.

병체는 단면이 좌우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한 형태를 이루며, 정상적인 변화가 부족해 탁한 기운이 흐른다.

4. 내룡의 형태와 영향

내룡(來龍)이란 산의 주봉에서 혈까지 연결된 능선을 말한다. 혈의 기운은 주봉의 기운이 용을 통해 모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용의 기운이 좋으면 혈도 따라서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 반대로 용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혈에도 좋은 기운이 모일 수 없다. 용의 기운은 혈 기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용의 기운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내룡의 기운이 왕성하면 기운이 좋은 자손이 태어난다.

내룡이 후부(厚富)하면 자손이 부유하다.

내룡맥(내룡맥)에 가지가 많은 경우에는 자손이 많이 태어난다.

내룡맥이 광채를 갖고 있으면 귀한 아들이 태어난다.

내룡이 순룡이면 충신과 효자가 태어난다.

내룡이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발복 기간이 연장된다.

내룡맥이 우뚝하면 기세 좋은 자손을 둔다.

내룡의 중심 부분이 강하면 장손이 잘 되고, 가지 부분이 강하면 자손이 잘 된다.

내룡맥의 힘이 약하면 힘없는 자식이 태어난다.

내룡맥이 고룡(孤龍)이면 자손들이 외롭다.

내룡맥이 흠어지면 자손이 건강을 잃는다.

내룡맥이 분산되어 있으면 축첩하는 자손이 나온다.

5. 용의 종류

생룡(生龍)은 생기가 통하고 있어서 혈을 이루는 반면, 사룡에서는 생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명당은 생룡에서만 이루어진다. 생룡과 사룡은 형태로 구분하는데, 갈 지(之)자 형태나 상하 운동하는 변화를 이루고 있으면 생룡으로 보고, 변화가 없이 평퍼짐하게 퍼져 있으면 사룡으로 본다. 생룡의 흙은 밝고 생기가 있는 반면, 사룡은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으며 기운이 없는 죽은 색을 가지고 있다.

용이 산봉우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변화가 아름다운 것을 정룡 또는 주룡(主龍)이라고 한다. 정룡은 혈을 이루는 용으로서, 주봉에서 혈까지 직접 연결되어 ‘내룡(來龍)’이라고 한다. 주룡이 생기를 말하며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작은 용을 만들며 진행해야 한다.

또 다른 용의 종류로 간룡(幹龍)과 지룡(枝龍)이 있다. 나무에 줄기와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용에도 간룡·지룡·작은 가지룡 등이 있다. 간룡이란 백두산·태백산과 같이 거대한 산맥에 의한 용으로, 거대하고 과격한 용을 말하며 ‘원룡(原龍)’이라고도 한다. 지룡이란 간룡으로부터 뻗어 나온 용을 말하며, 작은 가지룡은 다시 지룡에서 출발한 것을 말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용은 산의 높은 봉우리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형태의 용을 순룡이라 한다. 반대로 역룡은 높은 곳에서 조금씩 낮아지면서 다시 높이 솟아올라 역봉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순룡이 있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순한 마음을 갖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 반면 역룡이 있는 지역에서는 하극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용의 형태가 좌우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좌·우 상·하 변화가 부족한 것을 병룡이라고 한다. 병룡이 있는 지세에서는 병적인 기운이 통해 불구자가 나온다. 결항사는 용이 변화없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서 끝부분이 둥글게 솟아올라 있어 마치 목매달고 죽어 축 늘어진 시신을 놓힌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산을 말한다. 이런 지세에서는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 7)

제2절 혈(穴)

명당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땅을 혈(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혈은 명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땅에 명당이나 혈이 생기는 과정은 사람 얼굴에 입이 있고 신체에 생식기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 사람의 생식기가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인 것처럼 거대한 산에도 생식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혈이라 한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당과 혈을 찾는 것이다. 지세를 분석해서 혈의 위치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산에서 혈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봉우리와 능선(용), 청룡과 백호가 모두 잘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혈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검토한 뒤에야 혈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1. 혈의 발생

혈은 자연에 있는 음기와 양기가 결합해서 발생한다. 양기는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양전하고 음기는 땅에 분포되어 있는 음전하다. 이러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장기적으로 결합을 이루어 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음전하가 모이는 산과 용이 있어야 하고, 공기 가운데 양전하를 만들어 주는 수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청룡·백호·주작·현무 같은 바람막이가 있어야 한다. 사신사가 바람을 막아 주는 내부에서 지표면의 음 기운과 공기 중의 양 기운이 서로 장기적으로 결합해 밝은 기운이 발생한다.

주산에서 발생된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태조(太祖), 중조(中祖), 소조(小祖), 입수(入首), 혈판(穴板)의 5단계를 따르며, 각 단계사이에는 용이 있어서 앞뒤 기운을 이어준다. 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7) 박시익, 전제서, p106~p117을 필자가 재정리

다섯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단계 사이의 용이 끊어지면 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약해진다.

용의 5단계 결혈 과정 가운데 태조는 주산에 있는 주봉, 곧 용이 연결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중조는 태조로부터 내려오던 기운이 새롭게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하고, 소조는 중조로부터 내려오던 기운이 다시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한다. 또 입수는 소조로부터 용을 통해 내려오던 기운이 혈을 이루기 위해 기운을 단단하고 강하게 뭉쳐 놓은 지점을 말하며, 혈판은 입수에 들어온 기운이 혈을 만들기 위해 만든 널찍한 공간을 말한다. 혈판 중심부에는 혈이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혈판 주변의 평탄한 공간은 모두 명당이 된다.

2. 혈의 구조와 종류

혈은 용의 거의 끝 부분, 경사진 면이나 평탄한 지면 위에 형성된다. 대부분의 용이 암석으로 되어 있듯 혈도 암석으로 구성된 당판의 중상(中上)부위에 자리 잡는다. 혈은 당판에서 입수와 주작, 좌우 양쪽의 선익에 둘러싸여 있으며, 용·입수·선익·전순 등 여러 가지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다. 혈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2m 정도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방 각 6m가 되는 넓은 혈도 있다. 혈의 생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많으며,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밀도가 낮아진다.

와혈(窩穴)은 닭 둥우리나 소쿠리 속같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으로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모양이라 하여 개구혈(開口穴), 손바닥을 짓혀놓은 모양이라 하여 장심혈(掌心穴)이라고도 한다. 입을 감춘 것 같이 오목하게 생긴 장구과 입을 벌린 것 같이 생긴 장구와가 있으며, 높은 산에서는 대부분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오목한 요처에서 결혈되고 낮은 곳에서는 대부분 횡릉에서 결혈된다.

검혈(鉗穴)은 말발굽이나 방가리 같은 형상으로 와혈에 비해 혈장이 길다. 여자가 두 다리를 벌리고 뺨은 모양과 같다 하여 개각혈(開脚穴)이라고도 하며 이때 혈은 음부에 해당한다. 또한 소의 뿔과 같은 모양이라 하여 우각(牛角)이라고도 한다. 주로 산 능선이 만나는 합곡처(合谷處)에 결혈이 된다.

유혈(乳穴)은 둥글고 풍만하게 늘어진 여자의 유방과도 같고 나무에 과일이 달린 모양이라 하여 유두혈(乳頭穴)·현유혈(懸乳穴)·수유혈(垂乳穴)

이라고도 한다. 주로 높고 낮은 산 능선을 따라 결혈이 되고 내용의 끝 하부에서 많이 결혈된다.

돌혈(突穴)은 얹어놓은 무쇠 술이나 거북의 등과 같이 불룩한 형상으로 높은 산의 정상이나 주로 평지의 돌처(突處)에서 많이 결혈된다. 돌처에 불룩하게 노출되어 결혈되므로 바람과 물을 피하기 위하여 혈관 주변에 단단한 토질이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혈4격에는 혈상에 따라 술이 큰 대돌(大突), 술이 작은 소돌(小突), 술이 쌍으로 된 쌍돌(雙突), 술이 세 개로 된 삼돌(三突)이 있다. 돌혈은 불룩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입수·선익·전순이 분명해야 한다. 산형에 따라서 범조계 등의 명석한 후손이 다소 난다.

혈에서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동일한 지점에서 순환하며 조화를 이루으로써 열과 빛을 발산한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따뜻하고 밝아 명당을 이루는 것이다.

3. 혈 주변의 지세분석

혈은 혈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나 물 같은 자연 조건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혈 주위에 좋은 산이 있으면 좋은 산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산이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좋은 산이란 산의 앞면을 두고 말하는 것이며, 뒷면을 보이고 있는 산은 어느 경우든 좋지 않다. 산의 앞면을 마주하고 있는 산소는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을 받지만, 산의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 혈은 기운을 빼앗기고 피해를 당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물도 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다. 일반적으로 능선 왼쪽이나 오른쪽에는 물이 있게 마련이다.

혈을 만들어 주는 물은 혈관의 앞쪽에 있는 물을 말한다. 혈관이 우선할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물이 혈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이 왼쪽 물이 오른쪽 물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왼쪽 물이 처음 시작되는 위치가 득수며, 왼쪽 물이 흘러서 주작 끝을 감돌고 나가서 흘러나가 보이지 않게 되는 지점이 파구다.

혈관이 우선하는 경우에 득수 지점은 왼쪽에, 파구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용의 진행 방향과 물의 흐르는 방향이 서로 마주치게 된다. 혈관이 좌선했 경우에는 물이 오른쪽에 득수·득파를 이루게 된다. 좌선의

용에서 득수 지점은 오른쪽 위 부분이며 파구는 왼쪽에 나타난다. 이러한 지세에서 용의 진행 방향과 물의 진행 방향이 서로 마주치게 되어 혈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산의 형태는 기운이 중심에 모여 있는 형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기운이 좌우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형태가 좋은 산을 길사(吉砂)라고 한다. 기운이 모여 있는 산은 탄력 있게 보이고 기운이 분산된 산은 늘어져서 맥이 없어 보인다. 산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깨끗한 산이 좋은 산이고, 계곡이 많이 있는 산은 좋지 못하다.

제3절 사(砂)

사신사(四神砂)는 혈을 중심으로 주산을 등지고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좌측에 있는 산을 청룡(靑龍), 우측에 있는 산을 백호(白虎), 앞에 있는 산을朱雀(朱雀), 뒤에 있는 산을 현무(玄武)라 하며 일반적으로 좌청룡·우백호·전朱雀·후현무 라고 한다. 사신사의 형태로 현무는 앞에 있는 혈을 눈 아래로 바라보며 정지하여 있는 듯 하는 것이 좋고,朱雀은 봉황이 다가와서 춤을 추는 듯 하는 것이 좋고, 청룡은 뱀·지네처럼 길게 꿈틀거리며 뺨아서 혈을 감싸주는 것이 좋으며, 백호는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아 맞는 듯 하는 것이 좋다. 명당의 사신사는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생기를 공급하고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장풍(藏風)기능, 햇빛과 달빛을 받아 그 빛의 일부가 혈로 반사되는 반사경 기능, 반사된 빛을 혈에다 보아 생기를 발생시키는 볼록렌즈 기능을 한다.

1. 청룡과 백호

청룡이나 백호가 혈을 중심으로 여러 겹으로 감싸져 있을 때 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청룡·백호를 내청룡·내백호라 하고, 그 다음부터 있는 청룡·백호를 외청룡·외백호 라고 부른다. 내청룡과 내백호는 하나지만 외청룡과 외백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청룡과 백호는 혈을 중심으로 한 겹보다는 이중 삼중 여러 겹으로 감싸주면 감싸줄수록 좋다. 혈 뒤의 주산에서 산맥이 연결되어 좌·우로 마치 양팔과 같이 나와 혈을 감싸주는 청룡·백호를 본신용호(本身龍虎), 주산에서 산맥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산

에서 나와 청룡·백호가 된 것을 외산용호(外山龍虎), 한쪽은 본신에서 나오고 다른 한쪽은 외산에서 나와 청룡·백호가 된 것을 혼합용호(混合龍虎)라고 한다. 이 중에서 주산에서 산맥이 연결된 본산용호가 혈에 가장 많이 생기를 발생시킨다.

청룡과 백호는 외부의 바람이 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막아주고 골자기 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혈의 습기를 조절해 주며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청룡은 남성의 기운과 자식 번창의 기운을, 백호는 여성의 기운과 재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청룡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청룡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대표적으로 자손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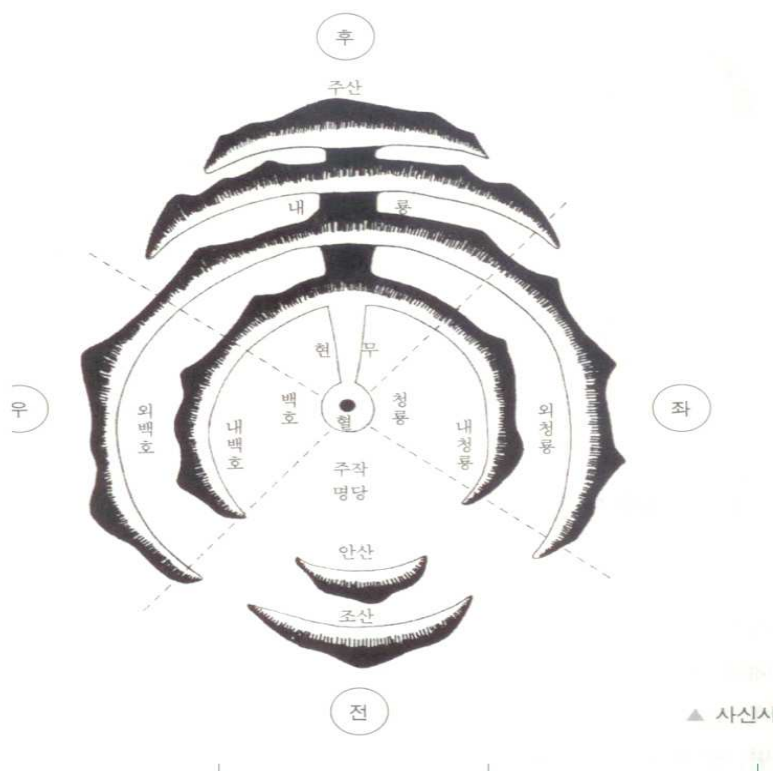


그림 4. <사신사>

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다. 청룡이 이 세 기능을 다하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좋고 특히 남자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재물을 모은다. 또 자손도 번창하나 청룡이 나쁜 지세에서는 건강을 잃고 자손이 줄어들어 대가 끊기기도 한다. 유순한 청룡의 지세에서는 효자가 나고 국가에 충성하는 반면 청룡의 산세가 상부보다 하부에 높이 뭉쳐 있으면 하극상의 비극을 만다는 사람이 나오고 등을 돌리는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회를 등지는 후손들이 나온다. 청룡 맨 위 부분은 형제 중에서 장남에게, 가운데 부분은 차남에게, 마지막 부분은 막내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청룡의 길이는 앞쪽까지 길고 둥글게 감싸고 있을수록 매우 강한 생기가 발생되어 왕기를 갖게 된다. 청룡이 집터에 가깝게 위치한 지세일수록 금시발복한다.

2. 주 작

주작이란 혈 앞에 가까이 있는 안산(案山)과 멀리 있는 조산(朝山)까지 혈 앞에 대응하는 모든 산을 뜻한다. 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안산은 귀인 앞에 놓인 책상과 같고, 조산은 귀인을 찾아온 손님이 책상 건너편에 있는 주산인 주인에게 배례(拜禮)하는 것과 같다.

(1)안산(案山)

혈 앞에 가까이 있는 낮고 작은 산을 안산이라고 한다. 안산과 주산의 혈과의 관계는 사람에 비유하면 부부가 다정하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안산은 수려하고 단정해야 하고 너무 크거나 혈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혈을 억압하는 격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안산과 주산과의 관계는 사람에게는 앞에 두고 쓰는 책상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평야 지대 등에서는 안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혈보다 약간 높은 발·언덕·구릉 등이 안산을 대신한다. 안산은 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산보다 혈에 생기를 빨리 전달시키고 혈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며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조산(朝山)

안산의 바로 뒤부터 혈을 향하여 성곽처럼 겹겹이 둘러싼 높고 낮은 모든 산을 조산이라고 한다. 주산과 조산과의 관계는 주산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신하가 임금을 알현하는 듯 손님이 주인을 뵈는 듯하고, 주산이 남편이라면 조산은 아내와 같아서 수려하고도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절을 하는 듯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상이다.

혈 앞에서 멀지 않는 조산을 근조(近朝)라 하며 이것은 낮은 것이 좋고 주산보다 크거나 높으면 주산과 혈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혈 앞에서 먼 조산을 원조(遠朝)라 하며 이것은 주산과 크기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주산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혈에서 멀고 바라볼 수 없는 조산을 암궁(暗拱)이라고 한다. 조산은 혈과 순응하여 혈의 길흉화복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조산은 혈을 향하여 높고 낮은 사격이 겹겹이 에워싸는 것이 좋다. 혈장의 역량과 크기가 작으면 멀리 있는 조산은 혈에 생기를 미치지 못한다.

조산은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보국을 안정시켜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3. 현 무

혈을 중심으로 혈 뒤에 있는 모든 산을 현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혈 뒤에 있는 모든 산을 무한정 현무로 보지 않고, 혈 뒤에서 성국을 형성하여 혈에다 생기를 미칠 수 있는 주(主)가 되는 산을 현무라고 한다. 이것은 혈의 대소에 따라 달라진다. 혈 뒤에 있다고 해서 후산(後山), 혈의 생기 공급처라 하여 본산(本山), 청룡·백호의 주가 되고 손님격인 주작에 대한 주인격이라 하여 통상 주산이라고 한다. 현무봉인 주산은 소조산 아래 혈의 형국을 이루는 제일 높은 산을 주산이라고도 하나, 혈의 대소와 산의 기운에 따라 소조산이 주산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소조산 아래 몇 개의 주산이 형성될 수도 있다.

주산은 사신사 가운데 혈에 생기를 직접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본산으로, 주룡에서 개장과 천심·박환 등의 여러 형태의 변화 과정을 거쳐 기세가 왕성하면서도 수려하고 양명해야 한다. 주산은 혈을 바라보며 약간 머리를 숙이는 듯한 형상이 좋으며 머리를 곧게 세우거나 뒤로 돌아 앉은

듯한 형상은 좋지 않다. 주산은 혈 앞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뒤에서 흘러드는 물을 막아주며 혈에다 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혈의 지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사신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는다. 사신사 중에 주인 역할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지세가 된다. 산세 규모나 기상이 청룡, 백호, 주작보다 크고 힘차야 하며 주룡에서 개장과 천심 등 여러 변화과정을 이루는 생룡이어야 한다. 지세가 좋으면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되는데 주작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주는데 반해 현무는 내부적인 힘을 만들어준다. 8)

제4절 수(水)

산은 천리의 근원을 바라보며 물은 천리의 끝을 본다고 하였으며 또한 산은 기복을 그 수로 하기 때문에 길흉은 그 고비(高卑)·후박(厚薄)·대소(大小)에 따라 정해지며 물은 곡절(曲折)을 수로 하기 때문에 길흉은 장단(長短)·심천(深淺)·완급(緩急)에 의해 정하여 지는 것이다.

산은 그 성질이 본래 정(靜)이며 물은 그 성질이 동(動)이다. 그러므로 본성은 산은 음(陰)이고 물은 양(陽)이다. 음은 체(體)이고 양은 용(龍)이기 때문에 길흉화복은 물에서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이다. 산에 대한 물의 방향은 산의 길방(吉方)으로 흘러 들어와 흉방(凶方)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풍수적 산세가 풍부하고 산천에 정기가 가득 찬 산세로서 명당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풍수가 학문의 체계화는 먼저 되었으나 산세의 풍수적가치가 매우 적은 관계로 명당의 혜택이나 학문적 발전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뒤떨어 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동양권에서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하고 생활 깊숙이 뿌리가 내리게 된 것도 산형지세가 풍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1. 물의 기운

풍수지리 이론을 분석할 때 물은 명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8) 박시익, 전게서, p137~p148 을 필자가 재정리

풍수, 바람과 물이라는 용어에도 나타나듯이 물이 있어야만 명당이 이루어진다. 『주역』의 기가 발생하는 순서에서 보듯이 물은 모든 생명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어느 땅이나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강이나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도 물의 형태에 따라 기운이 모이는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에서도 지세를 볼 때 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물은 재물을 맡은 것이므로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다. 비록 산중이라도 또한 시내와 간수⁹⁾가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대를 이어가면 오래 살 수 있는 터가 된다. 산과 물을 활동성으로 나눈다면, 산은 음이며 물은 양으로 해석된다. 산은 인사를 관리하고 물은 재물을 관리하므로 산과 물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조화를 이룬다.

명당은 바닷가보다 오히려 개천이나 작은 강이 있는 곳에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음양으로 보면, 물은 수축하는 힘이고 수축하는 힘은 자연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한다. 이에 비해 물은 확산하는 힘이고, 기운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한다. 명당은 물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물이 지나치게 많은 곳에서는 균형을 잃어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한 물의 기운이 지상에 흩어져 있는 불의 기운을 모두 흡수해서 지상의 양기가 고갈된 곳이 바다이다.

사람을 물과 불의 성질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불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하고 여성은 냉정하고 수용하는 기운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남성은 불의 기운으로 여성은 물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행 이론으로 물과 불의 관계를 보면, 수극화에서 물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의 기운은 물의 기운이 많은 곳에서 힘이 미약하고, 물속에서는 생명력을 잃게 마련이다.

2. 물의 형태

강물이 흐르는 형태는 지세에 의해 직선으로 흐르기도 하고 굽이치며 흐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강물의 흐르는 형태에 따라 명당이 형성되는 위치가 다르다. 직선으로 흐르는 강가 좌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기가 모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흐르는 물은 마치 화살이 급하게 지나

9)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가듯 바람도 살풍이기 때문에 지상의 기를 흩어지게 한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물이 형태를 ‘궁수(弓水)’라고 하는데, 활의 둥근 모양이나 굽이쳐 돌아가는 형태에서 곡선 중심의 안쪽을 말한다. 이러한 지세에서는 물이 잔잔하고 지기가 모여 좋은 집터를 이룬다. 반대로 곡선 바깥쪽에는 기운이 모이지 않아 좋은 집터가 될 수 없다.

3. 물이 흐르는 방향

물이 흐르는 방향은 산이 높고 낮음과 직접 관련된다. 물의 흐름은 산의 경사도와 일치하는 데 산의 경사도와 물의 경사도가 같은 방향을 이루는 경우를 산수동거(山水同去)라고 한다. 양쪽계곡의 경사와 중앙에서 흐르는 물의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결코 명당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한다. 명당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물이 산의 경사와 반대로 흐르는 경우를 역수(逆水)라고 하며, 이 경우 명당이 발생한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가에서 명당이 발생하려면 물의 흐름을 걷어 올리는 듯한 주걱과 같은 지세여야 가능한데 물이 흘러오는 쪽을 향해 산이 앞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역수를 이루는 곳이어야 하는데 모습이 주걱형이다.

또 다른 명당의 대표적인 형태로 행주형(行舟形) 지세가 있다. 행주형 지세는 강가에 물이 굽이쳐서 그 지역이 마치 배의 형태 또는 반달과 같은 형태의 지역을 말한다. 행주형은 흘러내려 가는 강물을 마주보고 퍼 올리는 숟가락이나 배 모양을 하고 있다. 행주형은 다른 말로 반달 또는 초생달의 형태라고도 한다. 초생달은 보름달과 같이 한쪽이 우묵하게 패어있는 형태로써 강물이 흘러가는 지세의 한쪽에 위치하게 되며 강물의 하부에서는 물이 휘어 나가게 되어 휘어 나가는 부분이 수구를 이룬다.

4. 수 구

물이 한 지역의 낮은 부분에서 강이나 개천으로 흘러 나가는 부분을 ‘수구(水口)’라고 한다. 이 명칭은 용의 끝과 물이 만나는 지점, 곧 청룡과 백호가 열싸안은 곳을 용이 물을 마시는 입으로 본 데서 유래됐다는 주장

과 청룡과 백호가 명당 앞면에서 서로 입을 마주대고 상대방의 물을 먹어 생기를 찾는다는 뜻에서 연유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한 지역의 물은 모두 수구로 빠져 나가므로, 수구는 모두 낮은 지역에 있다.

수구로는 물뿐만 아니라 바람도 빠져 나간다. 그러나 명당에서는 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 나가더라도 바람은 빠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물이 흘러 나가는 하류, 곧 수구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세에서는 물이 산을 감싸고 돌아 나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물은 산을 돌아 빠져 나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 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막힌 수구이다.

수구에 산이 없어 넓은 강물이 일직선으로 흘러 나간다면, 동시에 바람도 빠른 속도로 흘러 나가게 된다. 이런 수구를 막힌 수구의 반대개념으로 열린 수구라고 하기도 하고, 좁은 수구에 반해 넓은 수구라고 하기도 한다. 수구가 막힌 지세에서는 생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큰 부자나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열린 수구에서는 생기가 전혀 모이지 않아 건강과 재물, 명예를 잃게 된다.

수구를 이루는 용은 청룡이나 백호에 관계없이 반드시 열수를 해야 하는데 이유인 즉 역수를 하면 그 수구는 좁은 수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넓은 수구인 동시에 산수동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구를 이루는 용이 역수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수구에서 기를 모아 주는 힘도 커지고, 이에 따라 혈에 발생하는 생기도 더욱 많아진다. 청룡의 끝 부분에 수구가 이루어지면 백호가 역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수구가 좁아지고, 동시에 혈에 생기가 발생한다. 수구 중에서 청룡의 끝과 백호의 끝 부분이 서로 한 지점에서 합치거나 겹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수구를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청룡에서 만들어진 수구를 양 수구, 백호에서 만들어진 수구를 음 수구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강이나 개천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세를 합수라 하는데 물이 합쳐지면서 기운이 합쳐져 강해지기 때문에 합수(合水) 지역에서는 명당이 형성되기 쉽다.

득수(得水)란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지세에서 처음 물이 보이기 시작한 위치를 말한다. 물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지점은 파구(波口)라고 한다. 혈은 용과 물 두 기운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만큼 지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명당을 이루게 된다. 골짜기는 물이 없어도 물로 해석한다.

내룡(來龍)의 좌선(左旋) 또는 우선(右旋)에 따라서 득수 지점이 왼쪽이

나 오른쪽이나가 결정된다. 내룽이 우선일 경우에는 청룽 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을 이루고, 내룽이 좌선을 이룰 경우에는 백호 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이 이루어진다. 용이 좌우 혼합된 경우에도 득수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이 직선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물이 왼쪽과 오른쪽 양쪽으로 분산되어 흐르게 되는데, 이를 양파(兩波)라고 한다. 이 지세에서는 가족이나 재물이 흩어지게 된다.¹⁰⁾

IV. 영남지역의 풍수지리

제1절 영남의 지형과 인물

영남은 예부터 인재를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옛 신라의 화랑도도 그렇지만, 근세 조선조에는 나라 인재의 절반이 영남에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명현들을 배출하였던 곳이다. 국난기에 의병장이 많이 나온 곳도 영남이며, 현대에 와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 또한 영남이다. 우리 역사 무대에서 영남이 낳은 인재들의 활약상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최초로 달성한 것도 신라의 화랑들이고, 근세에 이 땅의 유교문화를 주도해온 이들도 바로 영남선비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남지방을 화랑정신의 본향(本鄉)이자 선비정신의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영남에서 그토록 많은 그리고 빼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 실학자 이익(李瀾)은 그의 '성호사설(星湖僿說)'¹¹⁾에서, 경상도는 태백산 황지(黃池)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이 좌우의 모든 지류, 하천 물줄기들을 하나로 취합하면서 김해와 동래 사이에서 바다로 들어가니, 영남사람들의 덕망과 관습 또한 굳게 뭉쳐져 흐트러짐이 없을 뿐더러, 옛 풍속이 그대로 지켜짐으로써 능히 나라 안에서 첫째가는 명현 배출의 고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10)박시익, 전제서, p90~p104 필자가 요약정리

11)조선 영조 때의 학자이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이 지은 책이다. 천지·만물·인사(人事)·경사(經事)·시문(時文)등으로 나누어 그의 해박한 실학적 논술을 모은 내용이다.

왕도(王都) 이외에는 감히 그 어떤 지역의 명당성(明堂性)도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왕정(王政)이 지엄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그의 영남 땅에 대한 지인상관론(地人相關論)적 해석은 과격적이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고려조에서는 황산강(낙동강)이 호남의 용진강(영산강) 및 섬진강과 더불어 본주(本主)인 개경을 등지고 무정하게 반대방향으로 흘러 달아나는 삼대 배류수(背流水)로 지목되어, 영남인들은 고려왕실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 받은 적도 있었다.

이익은 오래전부터 중앙조정에서 맹활약한 영남출신의 명현들과 목하 영남의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서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 선비들, 또한 아름다운 옛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가고자 하는 영남사람들의 심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많은 인물들을 낳은 영남의 풍토환경을 한 몸줄기로 된 낙동강에 상징적으로 빚대어 그 무한한 힘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 심성이 곳곳에 우뚝 솟아있는 명산의 위용을 닮아 웅대하면서도 무던하고, 그 풍속은 낙동강 큰 줄기를 닮아 결속력이 있으면서도 예절과 학문을 숭상하는 옛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왔으니 그러한 풍토에서 명현들이 배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풍토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인격을 만들어가는 장소의 지령(地靈)이다. 지령은 곧 산과 들, 숲과 계곡, 강가나 바닷가,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든 나름대로 존재하는 일종의 자연적인 기운이다. 옛 신라인들은 숲을 특별한 지령이 깃들인 성소(聖所)로 인식하고 나정(蘿井)숲을 건국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지로, 계림(鷄林)을 경주김씨 시조 김알지의 탄생지로 각각 신화화 하였다. 화랑들은 경주의 서천과 북천이 합류하는 금장대나 울주의 대곡천변 같은 영남 일원의 산천경계가 빼어난 곳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총석정, 삼일포, 영랑호 등지에까지 가서 심신을 단련하였다.

무(武)와 용(勇), 세속오계 같은 화랑정신을 제대로 습득하는 데는 그만큼 장소들만큼 지령이 적합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인로의 「파한집」에 기록돼 있는 바, □□통천을 경계 짓는 한송정 일대에 신라사선(四仙)인 영랑, 술랑, 남석행, 안상을 비롯한 삼천여명의 화랑들이 수련을 하면서 소나무 한그루씩을 심은 것이 오늘날 이처럼 울창하게 되어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린 듯하여 해를 볼 수 없을 정도구나 □□라고 하였으니,

화랑들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국토지령을 북돋우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죽계천의 소수서원, 길안천의 묵계서원, 대가천의 회연서원, 자계천의 옥산서원, 그리고 낙동강변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금오서원, 동락서원, 도동서원 등이 들어서 있는 장소들은 하나같이 맑은 계류나 강을 끼고 앉아 있다. 물의 본성은 맑고 깨끗함이다. 맑음은 천성적인 곧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물의 청정함은 곧 양지자(養志者)의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승화된다. 더구나 「논어」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즐긴다□□고 했고, 「채근담」에서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 생각을 멀리 원 대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낙동강의 지령이 곧 영남 선비문화의 태줄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금언(金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큰 강 of 지령이든 명산의 지령이든 간에 사람이 그 지령과 상호교감하면서 그것을 인격으로 내면화시킬 때 비로소 지령은 그 인물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난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금오산의 관계가 그 좋은 예다. 남명 조식(曹植)이 지리산을 품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금오산을 품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두 사람은 명산이 지닌 어짐보다는 정의로움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 초에 이미 무학대사가 금오산을 보고서 제왕이 날 큰 기운을 지닌 명산이라 했었지만, 정작 그 명산 정기를 정신으로 내면화시킨 사람은 바로 현대의 고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1. 영남의 인재들

한국역사에서 영남의 위상 철제 농기구가 한반도 남부지방에 도입되기 시작한 5~6세기 이래 오늘날의 영남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장 후진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던 한반도 남부의 영남 지방이 유리한 농업 환경을 기반으로 한반도 역사에서 이후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성장이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였다. 농경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신라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은 한반도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의 전파 속도가 가장 더딘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 때문에 신라는 라오둥 반도와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했던 고조선이나 고구려로부터 선진 문화를 전수 받았을 뿐이었다.

농경사회로의 전환 이후, 신라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선진 문

물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당대 최고 수준의 중국 문화를 직수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 나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국의 건설로 나타났다. 이후 통일 신라는 7~8세기에 이르러 최전성기의 문화를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단일 축으로 한 동·서 문화 교류의 동쪽 정착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10세기 전반 무렵, 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부 세력에 의해 건국된 고려가 한국 역사의 두 번째 패자가 되면서, 영남은 또 다른 변화 물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왕국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그러나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천년 왕국 신라의 위세가 하루아침에 사그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는 대로의 끝은 언제나 천년의 고도 경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 길을 따라 영남의 엘리트들이 상경하고 관료나 학자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동경 경주는 수도 개경과 오늘날의 평양인 서경과 더불어 고려의 3대 도시로서 이른바 3경(三京)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왕조가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부흥운동이 전개되곤 하였다. 집권 개경 세력을 견제하는 대체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영남 세력이 맡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이 지역 출신 관료 학자들이 중국의 새로운 사상적 조류인 정주학(程朱學)을 수용하는데 가장 적극성을 띤 것도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깊이 관련 되어 있다. 여말 선초의 왕조 교체 시점에서 구체제 옹호론이나 신체제 개혁론 양대 진영의 핵심 사상가들의 대부분이 영남 출신 사대부였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영남 지역은 조선 건국 이후 절의적(節義的) 기질이 특히 강했을 뿐만 아니라 정주학의 실천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강조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 이래 집권 세력인 훈구파와 곧잘 충돌하는 양상을 띠었다. 무오사화와 을사사화에 이르는 60여 년간, 16세기 정치사를 결정지었던 훈구파 대 사림파의 대결 국면에서 유난히 영남 출신 사대부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림파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훈구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일대 개가를 이뤄냈다. 사림파의 핵심에 영남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방 출신에 의한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한국 역사상 초유의 정치적 대

사건이었다. 근대 정당정치에서 수평적 정권교체가 갖는 정치사적 의의보다도 사림파에 의한 집권의 역사적 의의는 훨씬 큰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심을 영남 출신들이 메우고 있었다.

이후 사림파는 동·서인으로 분당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분열을 이어 나갔다. 이와 같은 다기한 분열의 최종 종착지는 서인-노론세력과 동인-남인 세력으로의 분기였다. 노론세력은 서울·경기를 지역적 근거로, 남인세력은 영남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왕조의 후반부 300여 년 동안 남인들은 재야세력으로 남았으며 그들의 지역적 근거지인 영남은 집권세력으로부터 노골적으로 차별 받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역사에서 영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와 같기 때문에, 영남은 싫던 좋던 한국 역사 전체의 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 따라서 영남의 역사는 곧 한국 전체의 역사이기도 했다. 따라서 영남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영남은 역사적으로 두드러진 인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된 인물들도 많았다.

2.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애초에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하여 교사 생활을 하였지만, 뜻을 바꾸어 만주와 도쿄에서 군관학교를 마친 뒤 만주군 중위로 근무했으며, 광복 뒤에는 신생 대한민국의 건군 과정에 합류했다.

당시 군부는 6·25전쟁과 50년대를 경과하면서 남북 분단과 냉전이라는 특수 상황 아래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실무 능력과 강한 국가 의식을 지닌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5·16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40대 중반에 불과하였고, 소위 혁명 주체들이라 불린 육사 6~8기생들도 30대 중반을 채 넘지 않는 청·장년층이었다. 이것은 5·16이 한국의 통치 엘리트 내부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촉진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엘리트 집단의 최선두에 서 있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캄보디아 등과 함께 세계 최빈국 대열에 속하였으며, 국가 예산의 절반과 국방비 전액을 미국에 의존하는 철저한 대외 의존 국가였다. 게다가 북한은 모든 경제 지표에서 남한을 압도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가 전체를 동원 체제로 재조직하였다. 경제발전 또는 산업화로 대변되는 조국 근대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이념의 근간을 이룬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이를 위해 관료제의 대대적인 개편, 수출 주도형 산업 정책,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같은 과감한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자본과 시장을 해외에서 끌어들이는 개방형 발전 전략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그리고 한·일 회담의 타결은 이러한 성장 전략의 한 과정에 불과하였다.

1960~70년대의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향한 시기였다. 그리하여 7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 사회는 농업 사회의 굴레를 벗어나 역동적이고 근대적인 산업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성공은 개발도상국에게 호의적이던 당시 세계 경제의 여건, 50년대를 거치면서 축적되어온 국내 역량, 빈곤 퇴치를 열망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호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렬한 의지와 지도력 없이는 '한강의 기적'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위업을 달성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산업화의 성공은 한국 사회를 수천 년 해묵은 빈곤의 굴레에서 탈출시켰고, 다원적인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체제 경쟁에서 북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점, 그리고 개방적 발전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세계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 점 등은 그를 한국 역사상 위대한 위인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인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12)

3. 호암 이병철

호암 이병철 선생은 1910년 2월 12일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에 서 부친 이찬우 공과 모친 안동 권씨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는 선비의 집안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병철 선생은 강직한 가풍 속에서 비교적 유복한 소년시절을 보냈다.

12)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2004년 7월 6일자 기사에서 발췌

이병철 선생은 다섯 살 때부터 조부인 문산 이흥석 공이 세운 서당 문산정에 다니며 한학을 공부했고, 열한 살 되던 해에 진주에 있는 지수보통학교에 편입, 이듬해에는 서울의 수송보통학교로 옮겨 수학했다. 그 후 중동중학교에서 신학문을 공부했으며, 1926년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후손 박두을 여사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에도 학업에 전념하던 이병철 선생은 1930년 4월 일본으로 유학하여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다. 그 무렵 세계적인 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심한 경제혼란이 빚어낸 사회상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이병철 선생은 느끼고 생각한 바가 많아 동경의 유학생생활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병철 선생은 몇 년 동안 깊은 사색과 구상 끝에 일제 식민치하에서 민족경제의 건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에 투신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천석꾼 부농의 막내아들 이병철은 1936년 경남 마산에서 친구들과 함께□□협동 정미소□□를 세워 도정업에 뛰어들었다.

그의 첫 사업은 순탄했다. 도정업의 성공과 함께 식산은행의 저리 대출금을 이용해서 농지 매수 사업에도 손을 대었다. 1937년 김해평야의 200만평 토지를 매입한 그는 약관의 나이에 일약 경남 제일의 대지주가 되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대출금이 묶이자 그의 대박 꿈도 일시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생애 최초로 실패를 맛본 셈이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젊은 날의 방황, 남의 돈으로 대박을 꿈꾼 요행심, 주먹구구식 경영 등 자신의 지난 날 모습을 뼈아프게 반성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이다. 더욱이 청년기의 실패는 인생 항로에서 중대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병철 선생에게 이때의 교훈은 더 없는 보약이 되어 평생의 좌표로 작용했다.

그의 기업가 정신은 70세가 넘는 나이에 도전한 반도체 사업에서 잘 나타났다. 80년대 초, 1차 오일쇼크 이후 산업 구조의 재편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목격한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단기간에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는 반도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린 끝에 1983년 3월 반도체 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술선수범 그 자체였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함은 물론 직접 반도체 관련 외국 서적들을 탐독하며 공부했다.

호암 이병철(湖巖 李秉喆, 1910~87)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삼성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브랜드, 오늘의 삼성을 있게 한 주인공이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흔히□□돈병철□□이라 불렀다. 하여튼 그는 사업이나 인생 모두에서 대성공을 거둔 복 많은 사람의 대명사이다. 13)

제2절 영남의 산하와 풍수

경상도에는 경기도나 전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넓은 평야가 드물다. 그렇다고 관동팔경으로 이름난 강원도처럼 푸른 바다와 빼어난 경치의 계곡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경승지(景勝地)가 많은 것도 아니다. 무릇 경치 좋은 산과 계곡으로만 이루어진 삶터라면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을지언정 생활무대로서는 답답함과 웅색함을 면할 수 없고, 끝없이 넓은 들판과 강으로만 되어 있는 삶터라면 어딘지 모르게 지루함과 공허함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 땅은 예외다. 태초에 영남분지 좌우 어깨 위로 거대한 두 산줄기가 생겨나 수많은 강줄기를 만들고, 또 그 강물은 오랜 세월을 인내 하면서 군데군데에 들판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명산의 남쪽자락에 마을을 앉히고 그 앞으로 펼쳐지는 강과 들판을 생산의 터전으로 삼아 풍요로운 삶을 누려 왔다. 산과 강과 들판이 조화롭게 짜여 있는 땅, 그 곳이 지리가 아름다운 고장이며, 그런 곳이 바로 영남지역이다.

영남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 많은 고장이다. 명당은 건강한 명산과 굽이굽이 감돌아 흐르는 강물에서 비롯된다. 상대적으로 방위풍수가 발달한 평야지역과는 달리 영남지방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좌청룡 우백호라는 식의 지리 형세설(形勢說)이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땅 기운은 물줄기를 만나야만 멈추는 것이니 물을 얻는 것이 바람을 가두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지리법칙이다.

흔히들 영남분지는 태백산에서 곧장 남쪽으로 내리뻗은 낙동정맥과 그 반대편 서남쪽으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거대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어서 위도에 비해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도 적다고 한다. 물론 큰 산 줄기의 존재 여부와 혹은 산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그 곳을 통과하는 바람의 성질도 바뀌고 물의 흐르는 방향도 달라진다. 그러나 물이 없

13)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2004년 8월 24일자 기사에서 발췌

는 명당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영남의 명산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영남분지 안을 흐르는 하천이나 강물이 그 밑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메마른 적은 극히 드물다. 여기에서 영남의 지경(地境)을 이루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라는 이대 간룡(幹龍),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 쳐서 나간 수많은 지룡(枝龍)들의 무한한 풍수역량을 충분히 헤아리게 된다.

영남 못산들의 조종산(祖宗山)은 단연 태백산과 소백산이다. 산의 크기나 위치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상 영남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에서는 산의 내맥(來脈)과 그 역할론이 크게 강조될 때가 있다. 명산은 위로는 아버지 산을 두고 아래로는 자식되는 산을 만들 때 비로소 그 용맥 계보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본다. 때문에 기를 단지 소모하는 산보다는 기를 한껏 모아 돋우어 주는 산을 진정한 명산으로 친다. 태백산과 소백산이 바로 그같이 기를 북돋워주는 풍수 명산이다.

이 양백(兩白)명산은 백두대간의 허리부분에 위치하여, 이리저리 뻗어나가 소진된 기를 다시 크게 모으고 돌운 후 백두대간의 허벅다리에도 속리산, 황악산, 덕유산 등을 일으키고 동쪽의 낙동정맥 상에는 백암산, 주왕산, 가지산 등을 일으킨다. 그렇다고 용맥의 흐름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산 또한 아버지 산을 닮아 제각기 자기 지역의 조종산 역할을 하면서 사방으로 지맥을 뻗어 여기저기에 직계 혈통의 서기어린 명산들을 솟구쳐 놓는다.

태백산이나 소백산은 몽글몽글한 육산(肉山)으로서 웅건한 기상을 물씬 풍기는 산이다. 특히 양백 명산은 산허리 위로 바위가 없는 까닭에 그 웅장함에 비해 전혀 살기(殺氣)를 띠지 않는다. 오히려 중후하면서도 한없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모습이다.

산은 계류(溪流)¹⁴⁾를 낳고, 계류는 여럿 모여 하천과 강을 만들고, 또 그 하천과 강은 삶의 터와 명당을 이룬다. 영남의 크고 작은 도회지와 마을들은 동해안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낙동강이나 그 지류를 끼고 발달해 있다.

낙동강 본류상의 안동과 구미, 남원천의 영주, 내성천의 봉화와 예천, 영강의 점촌, 감천의 김천, 대가천과 회천의 성주와 고령, 황강의 함천, 남강의 진주, 반변천의 영양, 용전천의 청송, 위천의 군위와 의성, 금호강의 영천과 대구, 청도천의 청도, 밀양강의 밀양 등과 각 강줄기의 적소(適所)

14)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

마다 고즈넉이 들어앉아 있는 고만고만한 마을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산을 등지고 하천에 면해 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으로써, 산줄기와 강줄기가 서로 열싸안고 빙 둘러싼 산수환포(山水環抱)의 명당이다, 이 하천과 저 하천이 서로 만나 한껏 더 기를 북돋우는 합수(合水) 명당,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와 물 흐르는 형세가 마치 옷깃과 허리띠 같은 산하금대(山河襟帶)의 명당, 뿌리 뒤편에서 상당히 먼거리를 달려온 산줄기가 그 맥을 끝맺는 지점에 넓은 들판이 열려 있고, 또 그 위로 강물이 유유히 굽이쳐 흐르는 산진수회(山盡水回)의 명당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낙동강은 예나 지금이나 영남 땅의 대동맥이자 영남인의 젖줄이다.□□대동맥□□이란 인체의 피와 같은 강물이 쉴틈 없이 흘러야 땅 전체가 생기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고,□□젖줄□□이란 기가 살아있는 깨끗한 강물이 흘러야 사람을 위한 만물이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산이 푸르면 강물도 넉넉하고, 강물이 깨끗하면 사람의 기도 맑아진다. 산은 곧 물이요, 물은 곧 사람이다.

사람이 살기 좋은 풍수 명당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산과 강, 그리고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 핏줄, 한 몸체로 어우러지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1. 대구의 풍수

거대도시 대구의 주산은 팔공산이다. 한반도의 큰 지맥인 백두산 줄기는 비록 군데군데에 지맥들을 가지쳐 놓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지맥은 줄곧 남쪽으로 내리 치달아 태백산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태백산줄기의 보현산 부근에서 한 가닥 큰 힘이 솟구쳐 나와 서쪽으로 뻗으면서 장엄 수려한 명산을 하나 일으켜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팔공산이다. 결국 팔공산은 백두산의 무량한 기운을 연면히 이어받은 적자(嫡子)의 뼈대 있는 명산인 셈이다.

그 옛날 신라가 나라의 수호산인 오악(五嶽)을 설정할 때 그 가운데 산으로 팔공산을 앉히고 토함산 계룡산 지리산 태백산 등을 사방에 거느리도록 한 것만 봐도 아버지 산인 팔공산의 뉘뉘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팔공산 지맥은 압량벌과 달구벌, 금호강과 낙동강 등을 만나면

서 그 산 흐름이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것은 곧 □□모든 산이 그치는 곳에 진혈이 맺히고, 모든 물이 모이는 곳에 명당이 있다□□고 하는 풍수정설과도 부합하는 것인 바, 팔공산이 명산 중에서도 으뜸명산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다. 15)

2. 부산의 풍수

부산이란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부산¹⁶⁾(富山)이란 명칭이 고려 공민왕 때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산모양이 가마꼴과 같아 세종25년 때부터는 부산(釜山)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옛날의 부산은 현재 동래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이곳은 원시적인 농경 생활을 알게 되면서 사회와 문화가 발달해 삼한시대에는 유력한 부족국가를 형성하였다. 특히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은 동래에 있던 나라로 가야 연맹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삼한시대부터 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해상 교역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이다.

부산의 지형은 크게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릉성 지대와 서쪽의 평야지대로 나뉜다. 구릉성 지대는 물운대의 남단으로부터 기장 효암리의 동단에 이르고, 육지로는 금정산(801.5m)에서 물운대에 이르는 산지와 금정산에서 해운대의 장산(634m)에 이르는 남동 방향의 산지로 400 ~ 800m의 구릉성 산지가 부산만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한반도의 중심 뼈대인 백두대간은 태백산에서 동해를 따라 남진한 낙동정맥을 출맥시켰다. 이 낙동정맥은 백암산→주왕산→가지산을 거쳐 남해까지 뻗어왔는데, 양산의 원효산에서 기장 땅을 지맥을 남동진시키고, 다시 난진한 정맥은 계명봉을 지나 금정산(金井山, 801m)으로 솟구쳤다. 금정산은 부산의 진산으로 낙동강 동부의 부산 지형을 이룬 소조산에 해당된다.

금정산을 못미친 계명봉에서 남진한 지맥은 수영강과 온천천 사이로 뻗

15) 영남일보 <환경칼럼> 1996년 11월19일자 기사에서 발췌

16) 부산(富山)이란 명칭이 기록에 처음 보인 것은 고려 공민왕 17년(1368)에 강구사(講究使) 이하생(李夏生)을 대마도에 보낼 때 백미 천석(千石)을 부산포에서 반출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동래부산포(東萊富山浦)"라 하였고,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도 "동래지부산포(東萊之富山浦)"라 하였으며, 또 같은 책 「삼포왜관도(三浦倭館圖)」에도 "동래현부산포(東萊縣富山浦)"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이때의 부산포는 '부자 富'자를 사용하고 있다.

어 내리더니 두 물이 합수된 동래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또 금정산에서 상제봉을 거쳐 남진한 낙동정맥은 만덕고개를 너머 금정봉에서 두 갈래로 가지 났는데, 동남으로 뻗은 지맥은 황령산을 거쳐 남구의 장상봉에서 끝나고, 남진한 정맥은 백양산을 지나 엄광산으로 솟은 다음 그곳에서 두 갈래로 갈려 북동진한 지맥이 수정산으로, 남진한 지맥이 구봉산으로 거쳐 용두산 공원으로 뻗어갔다.

또 계속 남진한 정맥은 구덕산에서 다시 두 달래로 갈라졌는데, 남동진한 지맥은 대치터널을 지나 천마산→장군산으로 솟은 다음 전진을 멈추고, 서진한 정맥은 곧 몸을 남진으로 바꾸더니 동매산→봉화산을 거쳐 다대포의 물운대에서 긴 여정을 멈춘다. 따라서 부산은 낙동정맥의 끝지점에 위치하며, 낙동정맥은 금정산→만덕고개→금정봉→백양산→구덕산→동매산→물운대로 이어지며 낙동강 동쪽의 부산 땅의 등뼈 역할을 담당한다.

부산은 크게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산악지형인 동부와 평야지대인 서쪽으로 구분되고, 동부는 수영강을 사이에 두고 해운대와 부산포가 구분된다. 특히 내륙에서 평야가 펼쳐진 곳은 온천천과 수영강이 합수한 동래지역이 유일하며, 따라서 근 현대에 들어 부산이 피난민의 정착지와 항구로써의 기능이 강화되기 전에는 동래가 부산의 실질적인 중심지였다.

그렇다면 옛날 부산의 중심지인 동래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동래는 계명봉에서 남진한 용맥이 수영강과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뻗어 내리고, 두 물이 합수한 지점에서 용맥이 멈춤으로 지기가 매우 왕성한 터이다. 풍수에서 용맥을 타고 흐르는 지기는 물을 만나야 멈추고, 그곳에 바람이 불면 지기가 흩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래는 계명봉에서 남동진한 기맥이 계좌산→구곡산→장산으로 이어지며 좌청룡이 되고, 또 금정산¹⁷⁾에서 금정산성→만덕터널→금정봉→금용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우백호가 되어 장풍의 형국이 양호하다.

17) 금정산(金井山)은 북으로 양산시 동면에 접하고, 동으로 금정구, 남으로는 동래구, 서로는 북구와 접하는 부산의 명산으로 진산이다.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치닫는 낙동정맥의 남쪽 끝에 솟은 산으로 주봉은 고당봉(801.5m)이고, 장군봉(727m), 계명봉(605m), 상계봉(638m), 원효봉(687m), 의상봉(620m), 파리봉, 미륵봉, 대륙봉 등 600m 내외의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금정산의 정상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물의 빛깔이 황금과 같다. 금어(金魚)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샘에서 놀았으므로 금정산이라 부르고, 산 아래에 절을 지어 범어사(梵魚寺)라 이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금정산은 숲이 울창하고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흘러내려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동래로 진입하는 수구가 좁고 그 안쪽에 마치 삼각주처럼 평탄하고 넓은 분지에 위치하여, 동래는 대를 이어 부를 이룬 명당으로 판단된다. 수구가 영성하면 많은 살림도 여러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저절로 없어진다고 했는데, 좁은 수구는 부지의 내외를 격리시키고, 안쪽에는 들어서면 확 트인 경관이 넓게 자리 잡아 별천지 같은 느낌을 준다. 내부의 땅이 평탄하여 곡식이 풍성하고, 바다가 가까워 해산물도 얻을 수 있으니 땅의 지기는 왕성하고, 장풍이 좋고, 땅은 비옥하면서 해산물도 얻을 수 있고, 수구가 좁아 생기가 흠어짐 없이 머무르는 길지이다.

3. 경북의 산수

풍수에서는 산줄기를 용맥(龍脈)이라 부른다. 용맥은 한껏 그 기운을 밖으로 발산하여 명산을 솟구치기도 하고, 또 잠시 쉬어가면서 고개를 일구기도 한다. 경북도계(道界) 속의 소백산·속리산·황악산 같은 명산과 죽령·이화령·추풍령 같은 고개는 모두 그런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사실 경상북도는 동쪽으로 동해와 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커다란 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백두산에서 남으로 내리뿜은 백두대간은 태백산 부근에서 우회하여 줄곧 남서 대각선 방향으로 달리면서 경북의 울타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대간에서 가지 쳐 나온 가야산 줄기와 낙동정맥의 한 지맥인 비슬산이 서로 마주하여 이른바 수구(水口)를 이루면서 낙동강물을 경남지방으로 흘러보낸다.

백두대간의 허벅다리에 해당하는 경북도계(道界)의 서쪽 산줄기는 그 용틀임이 자못 활기차다. 북동의 태백산에서 가지쳐 나온 한 줄기 큰 용맥이 줄곧 현(玄) 자, 지(之)자 형태로 힘차게 굽이치면서 남서의 덕유산을 향해 내리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간이 심호흡을 하면서 이따금씩 웅크린 기운을 내뿜을 때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명산이 솟구쳐지고, 그 아래의 깊은 골짜기에는 소위 말하는 삼재¹⁸⁾불입(三災不入)의 승지¹⁹⁾(勝地)들이 배태되었다.

대간 위의 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같은 산은 아니다. 태백이나 소백같이

18) 불교에서 세계가 파멸할 때 일어난다는 세 가지 재해를 뜻한다. 전란·질병·기근의 소삼재(小三災)와 화재·수재·풍재의 대삼재(大三災)가 있다.

19) 경치가 좋은 곳.

그저 몽글몽글 하면서도 웅건한 기상을 물씬 풍기는 육산(肉山)이 있는가 하면, 속리산처럼 아름다운 돌로 치장한 골산(骨山)도 있다.

그러나 사실 풍수에서는 그 같은 산의 겉모습 보다는 오히려 그 내맥(來脈)과 역할론을 더욱 중시한다. 모름지기 뚜렷한 용맥계보를 갖추고, 위로는 어머니 산을 도우고 아래로는 자식 되는 산을 일구는 산을 명산으로 치는 것이다.

즉 기(氣)를 단지 소모하는 산보다는 기를 한껏 모아 돋우어 주는 산이 풍수명산인 셈이다. 태백산과 소백산이 바로 그런 명산들이다. 이 양백(兩白) 명산은 백두대간의 중간쯤에 위치해서 이리저리 뻗어나가 소진된 기를 다시 크게 모으고 돋우어서, 서쪽으로는 속리산과 황악산을, 남동쪽으로는 주왕산과 운문산을 또다시 일으켜 세운다.

게다가 이 양백 자체는 산허리위로 바위가 없는 까닭에 그 웅장함에 비해 전혀 살기(殺氣)를 띠지 않는다. 오히려 중후하면서도 한없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모습이다.

조선 명종조의 격암 남사고²⁰⁾는 소백산을 보고 갑자기 말에서 내린 후 넋죽 절을 하면서,□□이 산은 정녕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명풍수가 소백산의 감당하기 어려운 영산정기를 얼마만큼 깊숙이 느꼈던가를 충분히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경북의 용맥은 곳곳의 승지에 민초들을 감싸 안고 숨기면서 훗날을 기약토록 하는 별외의 세계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건강한 산을 텃줄로 하여 골짜마다 넉넉히 흘러나오는 계류수들은 그들 나름대로 낙동강의 지류와 본류를 이루면서 도처에 이합수(二合水) 또는 삼합수 되는 명당을 잉태하였으니, 경북의 산수는 그야말로 도처가 풍수 길지였던 셈이다. ²¹⁾

20) 본관은 영양(英陽)이고 호는 격암(格庵)이다. 효행과 청렴으로 이름났으며, 평생 《소학(小學)》을 즐겨 읽었다. 역학(易學)·풍수(風水)·천문(天文)·복서(卜筮)·관상(觀相)의 비결에 도통하여 예언이 꼭 들어맞았다고 한다.

21)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1996년 12월3일자 기사에서 발췌

제 V 장 경북·영양의 주실마을의 호은종택

제1절 주실마을의 내력



그림 5. <주실마을의 전경>

1. 인문지리적 환경

주실마을이 있는 영양(英陽)은 본래 고구려에 속해 있다가 신라에 병합됨에 따라 고은현(古隱縣)이 설치됨으로서 비롯되었다. 757년(경덕왕 16년)에 유린현(有隣縣)의 영현이 되었는데, 오늘날 영양군의 행정구역인 청기면·영양읍 일대는 명주(溟州)에, 일월면·수비면 일대는 양주(良州)에 분할·소속되어 있었다. 고은현(古隱縣)은 940년(태조 23년)에 영양군으로 개명되어 청기현과 함께 1018년(현종 9년)에 예주(禮州)의 속읍이 되었다.

영양은 조선 전기까지 영해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오랫동안 독립적인 행정 구역을 형성하지 못한 영양 사람들의 분리·독립에 대한 바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1675년(숙종 1년)에 조책(趙頌) 등의 상소에 의하여 독립·분리되었으나 1676년 다시 영해부에 환속되었다. 1677년(숙종 3년)에 진보현과 영해부에 분할·소속되었으며, 1679년(숙종 5년)에는 영양향교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양은 1682년(숙종 8년)에 청기현과 합하여 영해부로 부터 독립되었다.

주실마을은 일월에 속해 있다. 군내 북부 중앙에 위치한 일월면은 본래 영해부 덕봉면(德峰面)이었는데, 조선시대 영양에 이속되어 북이면과 북초면으로 나뉘어졌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통폐합 때 북이면의 6개 동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영양군 일월면이 되었다.²²⁾

주실마을은 영양현에 딸린 주곡부곡(注谷部曲)이 있었으므로 주실 또는 주곡이라 하였다고도 하며, 1630년 이전에는 주씨(朱氏)가 살았으나 1630년에 한양인 조진(趙佺)이 이 마을에 입향하여 정착한 후에는 매한(梅寒)이라 하였고 1700년경 매계(梅溪) 혹은 매곡(梅谷)으로 부르다가, 마을 중앙을 흐르는 장군천을 좌우로 계곡이 상면하여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 주곡이라 불려 왔다고도 한다.

주실마을이 속한 영양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행정구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양사람들은 독립적인 행정체제를 이루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실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조진의 두 아들 조정형(趙廷珩)과 조정환(趙廷瓚)²³⁾은 영양현이 1675년에 독립되었다가 이듬해인 1676년에 다시 영해부에 환속되자 영양현의 복현운동을 처음으로 주창하였다.²⁴⁾ 이러한 활동은 외지에서 이거한 주실마을의 한양조씨가 영양지역에서 재지사족으로 성장하고 향촌 사회 내에서 지배세력을 확장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주실마을이 있는 영양군은 경상북도 내에서도 해발이 가장 높은 군지역이며, 태백산맥의 높은 산줄기가 군의 북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군 중앙에서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백암산 줄기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산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하천들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들 언저리에 편편한 평야지대가 자그마하게 자리하고 있다.

영양은 산지가 많아 약 80.7% 정도가 임야지대이고 경지율은 약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산간 내륙지역으로 기온의 일교차 및 연교차가 심하고, 일조시간이 짧아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지역은 넉넉한 살림을 가질 수 있는 고장은 못 되는 듯하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오랫동안 다른 지역의 속현으로 있었던 이곳 지역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3) 조정환(趙廷瓚)은 조진(趙佺)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전(佺)의 형 건(健)에게 후손이 없었으므로 그의 집에 양자로 갔다.

24) 조준호, 「17~18세기 영양지방 한양조씨의 문중연구」, □□북악사론□□ 제4집, 1998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주곡리는 면소재지인 도계리와 인접해 있다. 영양 읍내에서 청기방면으로 약 8km 지점에(15분 정도 거리) 주실마을이 있는데, 마을 앞으로 청기를 거쳐 봉화군까지 가는 918번 지방도로가 지난다. 주실마을의 서쪽으로는 일월산(1219m)의 갈래인 홍림산(767m)이 뻗어 내려 마을의 입구를 막고 있으며 감북골 서편에서 영양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 서쪽에 솟은 산을 독산(獨山) 또는 고산(孤山)이라 하며, 마을 중앙부에 자리한 종택 정면에는 문필봉과 연적봉이 있다. 마을 뒤를 감싸듯이 자리한 산은 매방산이라 하며, 종택의 오른편에는 현재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청석이라 불리는 조산(造山)이 있다. 이것은 매방산의 길한 기운이 종택을 감싸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며, 청석이 훼손되면 종택에 좋지 않다고 한다.²⁵⁾ 마을 입구에는 주실수가 있고, 이곳에 당제를 지내는 당나무와 조지훈의 시비(詩碑)가 있다. 마을의 중앙으로 일월산 동쪽에서 발원한 장군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음지마와 양지마로 나누어진다. 음지마는 청기방면으로 장군천 왼쪽에 있는 마을로 1998년 현재 약 10여호 정도, 건너편 양지마에는 40여호가 살고 있다. 조전이 입향할 당시에는 음지마에만 살았지만 점차 양지마까지 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양지마 앞에는 인근에서 쉽게 보기 힘든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면적은 약 만평 정도 된다.²⁶⁾ 고추는 영양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동시에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작물이며, 주실마을의 경우에도 논농사와 고추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다.

25) 조동훈(남, 62세, 주곡동 523번지) 제보.

26) 조동훈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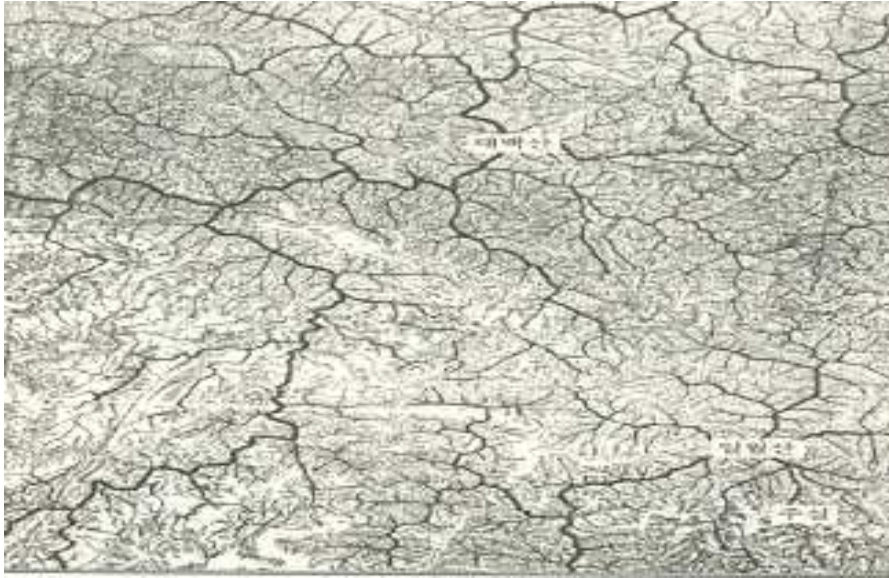


그림 6. <주실마을의 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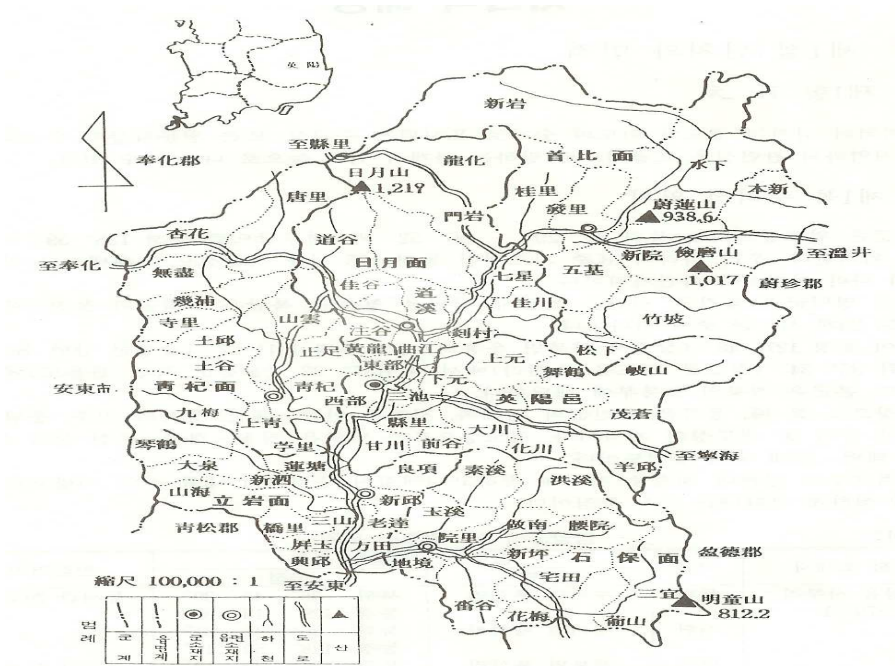


그림 7. <영양 주실 마을의 위치도>

2. 마을의 형성과 전개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주실마을은 한양조씨(漢陽趙氏)의 동성마을이다. 주실의 한양조씨는 시조 조지수(趙之壽)의 4대손 인벽(仁璧)의 증손 병참공(曾孫 兵參公) 련(憐)에서 나왔으므로 병참공파(兵參公派)에 속한다. 병참공 조련의 손자 중(琮)이 기묘사화를 피해 지금의 영주지역으로 옮겨간 뒤에 영풍군 일원과 안동·봉화·청송 등지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²⁷⁾ 기묘사화 당시 정암 조광조의 방계혈족이었던 조중은 낙향의 길로 지금의 영주로 이거하였으며, 이곳에서 1대를 보내고 그의 여섯 번째 아들인 형완이 안동 풍산으로 이거하였으며, 풍산에서 1대를 보낸 뒤 형완의 네 번째 아들 원이 영양으로 입향하였다. 조원이 영양으로 입향하게 된 것은 함양오씨(咸陽吳氏) 입향조 오필의 사위가 됨으로써 영양 원당리(현 하원리)에 입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원은 광인과 광의 두 아들을 두었는데, 주실마을 입향조인 조전은 광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1630년에 원당리에서 주곡리로 이거한 후 1632년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종택을 짓는 등 실질적으로 마을의 기초를 닦은 것은 그의 아들 정형이다. 조전이 세거지로 자리잡은 주곡리는 본래 주곡부곡(主谷部曲)이 있던 곳이다. 그러나 조전이 입향할 무렵인 1630년경에 이르면 이러한 부곡은 거의 소멸상태에 이르게 된다. 촌락의 구조는 촌역(村域)의 변천과 주민의 이동에 따라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고려시대 이래 지역은 주·부·군·현과 같은 일반 행정구역과 향·소·부곡·역·진 등과 같은 특수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외관(外官)의 유무에 따라 주읍(主邑)과 임내(任內)로 구분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군현의 구역을 읍치·임내·직촌으로 나누기도 하였다.²⁸⁾ 이러한 구역편성은 조선초 군현제와 지방 통치체제의 개편에 따라 임내의 소멸과 면리제의 정착을 가져왔다. 조전은 이 곳에 터를 잡았고, 이때부터 주실마을에는 그의 후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조전은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는데, 큰 아들이 조전의 형 건에게 양자로 갔기 때문에 둘째인 정형이 가문을 이어받았다. 현재 주실마을에는 가문을 이어받은 정형의 후손과 건에게 양자로 간 큰 아들이 어려서 죽은 뒤에 다시 양자로 들어간 조전의 셋째 아들 정환의 둘째 아들 후손, 그리고 조전의 사촌인 검의 셋째 아들 정린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타성은 비교적 최근에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조씨 가문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러

27) 중앙일보사, □□한국성씨대백과 - 성씨의 고향□□, 1989.

28)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p435

나 조씨 가문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1911년 조씨 가문의 노비해방과 함께 주실을 떠났다. 조전이 입향한 주실마을은 17세기에 조전의 두 증손 조덕순과 조덕린이 대과에 급제하면서 지역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후 18세기 초에 덕린의 증손 조진도가 다시 대과에 급제하여 영양지역 내의 유력한 가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대내적으로는 종친계 등으로 혈연중심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혼인과 유림활동을 통해 그 세력을 넓혀 나갔다. 영양지역에는 총 51개소의 누정(樓亭)이 있는데 누정은 사족들이 정자를 중심으로 학업을 연마하고, 문중의 자제를 교육시키며 종친회, 재실 등의 문중활동 뿐만 아니라 시단을 이루어 시정을 나누거나 향약시행처(鄉約施行處), 양로교화소(養老敎化所), 동계회집소(洞契會集所)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였다.²⁹⁾ 누정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고, 대외적으로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수의 누정의 건립은 곧 그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영양지역의 누정 가운데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건립된 것은 모두 30개인데, 이 가운데 15개가 한양조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³⁰⁾ 이 자료는 물론 주실마을만의 기록이 아니지만 당시 영양 지역내에서 한양조씨 가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주실마을의 조씨 가문에서는 이미 17세기에 대과 급제자가 나왔으므로 주실 조씨가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한 지배세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³¹⁾

제2절 주실마을의 인재들

일월산 정기를 한껏 받아 그 이름도 정기가 쏟아지는 마을이라는 뜻의 주곡(住谷)에 한양 조씨가 터를 잡은 것은 13세 호은공(壺隱公) 조전(趙

29) 이해준·김인걸 외, □□조선시기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84쪽.

30)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한양조씨 가문에서 건립한 각 시기별 누정의 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 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총 계
누정 수	·	5	6	4	15

영양군, □□영양군지□□, 1970.

31) 강희정, 「주실마을 근대문화 수용과 전통문화의 변화」, 안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p8~p16

侄)대부터이다. 본래 한양에 세거하면서 조씨의 선대가 기묘사화로 인해 각지로 흩어지면서 9세 현감공(懸監公) 조종(趙琮)이 경북 영주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의 손자 조원(趙源)이 1535년 영양 땅에 입향하였는데, 조전은 조원의 손자이다. 조전이 1629년에 매방산 기슭에 터를 닦은 이후 조씨 가문은 학문과 사환 그리고 영남 명문가와의 혼인을 통해 명문 사족으로 성장해 갔다. 16세 호봉공(壺峰公) 조덕순, 옥천공(玉川公) 조덕린 형제에 이르러서는 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이 크게 빛나기도 하였지만, 조덕린이 노론 비판 상소를 올려 노론의 탄핵을 받는 바람에 더 이상 중앙으로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관계로의 진출은 좌절되었지만 ‘문한지향(文翰之鄉)’ 주실은 학행과 도의가 뛰어난 인물을 많이 배출해 냈다.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마을이야 찾아보자면 한둘이 아니겠지만 주실처럼 계속해서 많은 인재를 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주실에는 ‘인물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인물의 고장으로서 주실의 명성은 특히 현대에 들어 더욱 높아진 듯하다. 주실의 존재를 확실히 세상에 알렸던 조지훈을 비롯하여 많은 인물들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각 방면에서 활약하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답사지가 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주실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주실 인물의 활동 양상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오늘날 주실 인물들의 활동에 대해 이해 속에서 주실의 전통이 지니는 의미 또한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 근대를 향한 주실마을의 인물들

주실은 문한지향이다. 집권 노론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조선후기에 관직으로 많이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문집과 유고를 남긴 인물이 63인을 헤아릴 정도로 학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장을 빌리지 않는다는 ‘문불차(文不借)’의 전통이 ‘삼불차(三不借)’의 한 조목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실 인물들은 영남학파의 학통을 계승하여 의리지학(義理之學)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채제공(蔡濟恭), 이가환(李家煥), 정약용(丁若鏞) 같은 근기남인 실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며 제례에서 단설의 실시, 관혼례의 통합 등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를 하나의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개화기에 접어들자 주실 인물들은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의병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학문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석농(石農) 조병희가(1855~1917)가 1899년에 서울에서 개화개혁운동에 동참한 후 고향에 내려와 조창용, 조술용, 조종기, 조두석 등을 대동하고 상경하면서부터 주실에 개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조병희를 따라나섰던 조술용, 조종기, 조인석, 조두석은 1879년생 동갑이었으며 조창용은 이들보다 4년 연상으로 모두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조병희와 함께 1904년부터 국민교육회와 대한자강회에서 활약하였고, 조창용은 1895년에 설립된 황성 사범학교, 주술용은 관립 영어 학교에서 각각 수학하였다. 조창용의 경우는 후일 만주로 건너가 신한촌 건설에 선봉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독립기지건설운동이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의 발전적 결합체임을 생각한다면 주실 인물의 해외 독립운동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주실마을의 개화풍은 조술용 등 개화운동을 주도한 1세대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들은 대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교육을 받게 하였다. 관립 영어학교에서 수학한 주술용은 네 아들 석기, 용기, 휴기, 홍기 모두에게 신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가운데 용기와 홍기는 일본에 유학을 보냈다. 조두석의 네 아들 용해, 봉해, 성해, 도해 역시 모두 신교육을 받았다. 자발적으로 단발을 하고 개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조인석은 1908년 영양 지역 최초의 근대적 사립교육기관인 영흥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 활동에 적극 나섰다.

한편 주실은 반상(班常)의 신분 타파에 앞장서서 1910년대에 이미 노비를 해방하고 종손의 과부를 재가시키는 등 봉건적 유제를 청산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인석은 ‘왜놈 교육을 받아서 어디서 써먹을 데가 있느냐’고 일제 치하에서의 신교육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전통한학을 고집하였지만 자신이 일으켜 놓은 개화바람은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근영과 현영은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였으며, 여자는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 양육에만 힘써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지만 딸 애영 역시 신교육을 받았다. 신학문에 대한 열풍 속에서 마을 내의 많은 청년들은 각지의 고등보통학교와 사범학교, 농림학교 등에 진학하였고 일부는 일본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일제치하에서 신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조인석의 우려처럼 식민통치지배를 위해 봉사하는 지식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한 일이었으며 실제

로 신학문을 배운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일제의 하수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주실에서는 조인석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였다. 신교육을 받은 주실 인물들은 민족운동을 주도하였고 선대의 학문적 전통이 근대에 들어서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어 해방 후 주실 인물들의 활동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³²⁾

2. 해방을 맞은 주실마을의 인물들

남의 재화를 빌리지 않는다는 ‘재불차(財不借)’가 ‘삼불차’의 또다른 한 조목으로 내려온 것을 주실의 경제력이 상당했다는 증거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주실 역시 일제 강점기 때에는 조선의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궁핍하였다. 요절 시인 조세립은 자작시 『실춘보(失春譜)』에서 1930년대 후반 주실마을의 비참한 생활상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곤궁하였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여전하여 주실 사람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식들을 외지로 보내공부를 시키며 앞날을 준비하였다.

조동걸 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해방이 되고 남북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주실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어른들, 청년들이 돌아와 마을이 시끌벅적하였으며 극우의 노래와 극좌의 노래 등 별별 노래가 다 불리었다고 한다. 행동을 먼저 개시한 것은 청년들이었는데 조성을을 비롯하여 조훈기, 조석구 등의 마을 청년들은 은화청년회를 결성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에 꽃탑회를 만들어 수시로 토론회와 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던 경험이 있는데다가 해방 당시 주실에는 대학 졸업자와 재학생이 수십 명에 달하였기 때문에 은화청년회의 활동 수준은 대단히 높았다. 청년들이 은화청년회나 주실소년회를 만들어 분주히 활동하고 있을 때 마을 어른들은 서울과 대구 등지로 나가 새 조국 건설에 매진하였다.

조근영은 관계에 입문하여 문교부 문화국장과 국립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조용해는 미군정기에 경상북도 후생국장을 지냈다. 조헌영과 조준영은 임정 및 연합군환영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해방 후 얼굴을 내밀었다. 조헌영은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들어 1945년 9월에는 연락부장·조직부장 등을 지냈으며 1948년 5월에는 고향에서 제헌의원에 당선되었다. 조준영은 경찰에 투신하여 문경경찰서장

32)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영양주실마을』, 예문서원, 2001, p258~p260

을 시작으로 경부도경국장까지 승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지훈은 조선문화의 해방과 건설 그리고 문화전선의 통일을 목표로 해방 직후 설립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참여하고 조선청년문학가협회 창설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등 문화운동에 적극 나섰다.³³⁾

3. 오늘의 주실마을 인물들

해방 후 주실 인물들은 사회 각 방면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 유달리 많아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교수 출신 인사가 많다는 사실이 늘 관심의 초점이었다. 실제 주실 출신 전·현직 교수는 그 숫자만도 20여 명이 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예비 교수까지 합치면 30여 명에 이른다. 문집과 유고를 남긴 인물이 63인에 달하였던 ‘문한지향’의 전통을 생각하면 학자를 많이 배출한 것이 그리 이상할 것 없어 보이면서도 또한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예사롭지 않음은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층 더해지는데, 특히 뛰어난 국학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점은 민족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해왔던 주실의 전통이 학문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말해준다.

1948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학계에 첫발을 내딛었던 동탁 조지훈은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한국학 연구에서도 선구적인 자취를 남긴 분이다. 사학·민속학 등의 분야에서도 뛰어난 학술 논문을 많이 남겨 사람들을 경탄케 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는데 『한국문화사서설』, 『한국민족운동사』가 대표적인 저술이다. 국민대학교 대학원장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한국국학진흥원장 등을 역임한 조동걸 교수는 한국근대사, 특히 민족운동사 분야 연구의 한 획을 그은 국사학계의 원로로서 저서만도 20여 권에 달한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조동일 교수는 한국문학사를 넘어 세계문학사를 정리하고 있는 국문학계의 거두이다.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바 있는 조동원 교수는 한국의 금석문 탁본 자료를 수집하여 7권의 『한국금석문대계』로 정리하였다. 『한국금석문대계』는 한국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필수적인 자료집이 되었는데 한 연구자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노작이다. 주실 출신연구자들은 국학 외에도 공학·의학·경영학·법학 등의 분야에도 진출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3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전게서, p262~p265

주실 인물들은 해방 이후 정계와 관계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조현영이 제1대·제2대 의원선거에서 연속 당선되고, 조희석이 경상북도 도의원이 되는 등 정치권으로의 진출도 활발하였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관계로의 진출이었다. 조진기는 문교부 성인교육과장을 지냈으며, 조석운은 국립도서관 고전과장, 조성길은 문화공보부 문화국장과 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을, 조동창은 문예진흥원 기획조사부장을, 조석공은 문예진흥원 감사부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모두 교육·문화계에서 활동했음이 이채롭다.

한편 의사·변호사·건축설계사·공인회계사 등 이른바 전문직으로의 진출도 활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특히 의학 분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져 현재 10여 명이 의사·한의사로 일하고 있다. 특히 주실에서 처음으로 의학을 공부했던 인물은 조현영으로 그는 뛰어난 한의학자였다. 조현영은 1934년 『통속한의학원론』을 저술하였고, 조선일보에 「음양론의 이론과 실제」 등을 기고하여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서양의학과는 조석기와 조용해가 각각 경성의전에 입학하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조운해가 대구의전에 들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조운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고려병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의학계의 대표적인 원로이다. 그는 대한병원협회 회장·아시아의사협회 회장·세계의사협회 이사로도 활동하였다.

주실 인물들은 사상·종교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영양 향교의 전교직을 맡았던 인물을 분석해보면 130여 명 가운데 조씨가 65명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조씨가 영양 유림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씨 가운데 주실 인물이 26명을 차지한다. 유림계에서 주실이 차지하는 위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조인석, 조술용, 조봉석 등이 영양 향교 전교를 맡은 대표적인 인물이며 해방 후에는 조유기를 비롯하여 조흥석, 조진영, 조형석 등이 전교직을 맡아 보았다.

이 밖에 제계·금융계에서는 조운해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사위가 된 연유로 삼성그룹과 관계있는 인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실에서는 조운해가 삼성가의 사위가 된 인연으로 주실 인물들이 재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마을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노적봉의 기운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대동은행장을 지낸 바 있는 조성춘이 주실 인물을 대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궁벽한 시골 주실 마을 출신 인사들이 한국 사

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그 비중은 결코 세속적인 출세나 성공 여부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문의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그대로 묵수하지 않는 혁신적 전통이 오늘의 주실 인물들을 키워 냈으며 그러한 전통의 존재가 주실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다.³⁴⁾

제3절 주실마을의 풍수개요

주실마을은 경북 영양군 일원면 주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일원면의 면적은 120.43Km², 인구수는 2426명이며 인구밀도는 12.4명이며 면소재지는 도계리이다. 일원면은 13리를 관할하고 높은 산지가 지배적인 면으로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루며 산맥이 3분되어 일원사의 동쪽 용화리에서 발원하는 장군천을 끼고 남으로 뻗은 산쪽에 경지와 촌락이 형성되었다. 내력의 오지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기후로 일교차가 크며 겨울이 길고 일조시간이 짧으며 강수량도 적은데 10월초가 되면 서리가 내려 무상일수가 짧다. 경지는 주로 남부에 전개되고 고추는 특용작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3월까지 눈 속에 특산물인 금죽은 옛날부터 임금님께 진상되던 명물중의 하나다. 다른 면단위 지역에 비해 주곡리에 한양조씨, 가곡리에 야성정씨가 동족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³⁵⁾

일원산 일자봉의 한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 첫 번째로 한 매듭을 짓고 부용봉의 중심으로 내룡이 내려가 일월산의 한 자락 끝에 자리한 마을이 한양 조씨 집성촌인 주실마을이다. 호은공으로 불리는 조전이 그의 아들 정형과 함께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이 1529년이므로 이 마을 조씨 집안의 역사는 3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 무렵에 세워진 종가 즉, 호은종택에서 청록파 시인 조지훈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마을의 저력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준다. 마을 뒤 주산에서 살펴보니 산구가 음양교합(陰陽交合)으로 명당임을 알 수 있다. 소봉들이 병풍을 펼친 듯이 마

34)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전계서, p265~p271

35) 영양군수 권용환, 영양군지, 정각당, 1998, p751



그림 8. <주실마을>

을을 감싸고 전주작생용봉들이 마치 살아있으면서 꿈틀거리는 모양으로 마을을 향해 에워싸듯, 모아져 있는 사촌양신을 고루 갖춘 형국이다. 주산 정상에서 갑자기 입수하여 해룡맥으로 내려오다가 소봉은 남서방향으로 비껴 간좌로 입수되어 우백호를 만들면서 갑좌로 둘러싸여 수려하게 산형을 이루었으며 좌철룡은 자좌맥으로 행룡하여 간자 입수되어 마을을 호위하는 형국이다. 좌우 중심용절을 타고 내려오면서 중심혈을 감으니 간맥적이고 이 맥절을 타고 마을 중심지에 내려와 정혈지에서 보니 계좌다. 십이운송으로 순포로 돌려보면 흐르는 물은 일원산 일자봉 자락의 샘골에서 시발하여 일원면 도곡, 가곡리를 거쳐 마을 앞 숲에서 천간자손자상으로 출거하여 장군천으로 흘러들고 인정과 재물이 흥왕하고 공명현달하여 후손들 모두가 장수 할 지세다. 정미방향에 전주작은 웅장한 홍립산이 솟아 있고 천을 태율이 운첩에 사무쳐 대작이며 즐비한 소봉들이 곳곳에 솟아 있고 대대로 공명이 난다. 또한 수려하고도 묘한 생룡봉들이 마을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오는 듯한 봉들 중 신방의 연적봉은 먹을 같아 유방위봉의 문필봉을 만들어 높이 솟아 있고 많은 문장가가 살 지세이니 대명당지다.³⁶⁾

36) 김진학, 『일월산의 지맥과 풍수』, 중외출판사, 2003, p48

제4절 호은종택의 풍수지리적 분석

주실마을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은 호은 종택 혈터는 이름 그대로 호은공이 잡은 자리이다. 호은 종택이 자리잡은 지맥은 영양지방의 명산인 일원산에서 흘러온 맥이다. 주실에서 일원산까지 능선을 타면 12Km정도이다. 주실에 도달한 지맥은 야트막한 세 개 봉우리 가운데 부용봉의 밑부분에 호은 종택이 자리잡고 있다. 마을 뒷산 매망산의 좌청룡과 우백호가 휘감아 내려오면서 신우혈을 만들면서 마을 앞산들은 독산 혹은 고산이라 하며 이 산에 있는 봉들은 생룡봉들이라 한다. 생룡봉들이 소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형상이라는 설도 있다. 주실 앞을 휘도는 산세는 서쪽 갈미봉으로부터 동쪽 홍림산까지 마치 빨랫줄을 끄는 두 개의 버팀대가 되어 줄에 걸려 있는 물 머금은 빨래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있다. 마을에서 볼 때 산세의 흐름이 시작되는 서쪽의 갈미봉은 일월산 일자봉이 한줄기의 맥을 주실 뒷산으로 한번 빼고는 다시 남진하는 기점이자 방향을 동쪽으로 트는 변환점이기도 하다.³⁷⁾ 갈미봉에서 홍림산으로 이어지는 주실 앞산들의 기운이 왕성한 상생성이 주실을 향해 크고 작은 골짜기를 여럿 생산하지만, 역시 회심의 작품은 주실 앞마당까지 다가와 낚은 문필봉과 연적봉이다.

문필봉와 연적봉은 실과 바늘의 관계만큼이나 밀접하다. 글쓰는 붓과 붓을 적셔 주는 먹물은 그 어느 것 하나 없이는 쓸모가 없다. 대개 문필봉이라는 이름을 얻은 산은 봉우리 모양이 뾰족하다. 그러나 뾰족한 봉우리를 갖더라도 이 문필봉처럼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좌우로 완전한 대칭형태로서 단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호은종택의 집터를 잡을 때 일화를 보면 호은공이 매망산을 올라서 매를 날려 매가 날아가다가 앉은 자리에 집터를 잡은 이야기가 있다. 매를 날린다는 것은 동물의 감각 내지는 본능을 이용하는 일종의 동물점을 이용한다. 또 호은종택 터는 늪을 매워 집을 지었다는 점이 일반 택지법과 다른 점이다.³⁸⁾ 일원산 자락의 모든 지맥은 일원산의 일자문성(一字文星)의 정기를 받아 학자가 많이 배출된다.

37)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전계서, p26

38)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전계서, p28

1. 주산의 풍수적 해석 (부용봉)

예부터 부용은 연꽃으로 문인 군자를 상징한다. 주실에 내재된 힘을 배태시키고 이를 기르고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산이 부용봉과 매방산이다. 부용이라는 이름의 산들이 주변의 지세가 산봉우리를 꽃잎처럼 감싸고 그 아래로 물길이 휘둘러져 잇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 주실의 부용봉도 앞산에서 보면 이런 형국이다. 다만 꽃잎처럼 외호하는 산세가 취약하니 부용이 꽃잎을 젖히고 만개했다고 보면 된다. 주실이 단순히 수려한 경관을 가진 마을에 멀지 않고 알찬 생명을 잉태하여 인간세를 이롭게 하는 인물을 많이 배출함으로서 이름난 마을이 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가 아닐까?

주실의 주산인 부용봉은 매방산과 전변엔 갈미봉 홍림산으로 주실 다음의 기질로 둘러싸인 호리병 모양의 주실에 전후면의 산이 내는 기운이 상호 작용하여 주실을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산의 갈미봉 홍림산은 마을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 문필봉의 기를 빨리 받을 수 있고 부용봉, 문필봉이 전후로 작용하는 기운과 매방산, 독산이 전후로 작용하는 기운이 마을에 축을 형성하여 호리병 안의 생명을 숙성시키고 있다.



그림 9. <주산 부용봉>

2. 청룡의 풍수적 해석

혈의 좌측에 있는 사를 말하며 호은 종택 좌측에 소방도로로 이용되는 야트막한 언덕이 내청룡으로 보인다. 내백호와 함께 와혈의 기를 잘 감싸 준다. 와혈은 쇠뿔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어 우각이라고도 한다. 내룡이 종택 주위를 잘 감싸고 있어 명당인 보국을 만든다. 외청룡은 영양 방향으로 외수구를 잘 교쇄하며 문필봉을 안산으로 둔 대명당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다.

3. 백호의 풍수적 해석

주산을 등지고 서쪽인 오른쪽에 있는 산을 말하며 백호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재산과 여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백호가 기능을 다하는 지역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백호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문을 위해 정절을 바치는 여성이 나오고 등을 돌리는 지세에서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뒷면을 보이는 배반격인 경우는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백호의 길이는 사신사 기능에 직접영향을 주는데 백호가 집터 가까이 있을수록 금시 발복한다.³⁹⁾

종택을 중심으로 오른쪽 봉우리를 백호라 하는데 백호가 길게 돌아와서 안산이 되었다. 내백호는 종택 우측으로 야트막한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택을 내청룡과 함께 좌우사가 확연하게 감싸주고 있어 바람을 막아 주고 생기를 모아준다. 백호의 길이와 거리는 가깝게 있을수록 영향력이 빠르고 길이도 길게 뻗어 있으면 매우 강한 생기가 발생된다. 호은종택은 외백호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딸과 며느리들에게도 배호의 유순한 지세가 잘 전달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궁벽한 산골동네에서 재물을 모으고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것도 이곳이 명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39) 박시익, 전계서, 1999, p146

4. 조산의 풍수적 해석 (일월산)

일월산은 풍수적으로 볼 때 높이 1,219m의 일자봉과 1,205m의 월자봉으로 형성되어 있다. 일월산의 좌청룡은 일월면 칠성봉과 수비면 검마산을 거쳐 석보면 명동산으로 이어지고 멀리는 동남방으로 백암산을 형성시켜 백암산하의 백암온천을 만들고 남방으로 비껴 주왕산을 형성하여 동서남북으로 많은 혈장과 명당지를 만들어낸다. 우백호는 동화재 능선으로 이어져 청기면 행화리 행정 뒷산 주령으로 분지일간하여 장갈산을 형성하는데 웅봉전령으로 기복하면서 서방 낙동강 상류수와 옆치락 뒷차락 음양교류를 하여 사정없이 남방으로 치달아 살짝 비껴 청량산을 만들어낸다. 또한 안동군 도산면 장갈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형국으로 형성되어 이 지맥들은 멀리는 수백리를 내달으면서 혈장과 명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월산은 봉화군에 접하면서 달리 일위산 혹은 일우산 또는 쌍룡악(雙龍岳)이라고도 불리운다.

일월산은 두 마리 용이 뒤엉켜 하늘로 날아오르는 쌍용비등천형(雙龍飛等天形)으로 삼길육수의 묘한 영봉들을 형성하여 사방의 격을 이루었고, 이는 토산으로 용혈사수는 물론이려니와 관귀금요 또한 제대로 갖춘 진혈지이다. 백자천손에 부귀 겸전한 산으로 만대향화지지(萬代香花之地)이다.

일월산은 동쪽에 칠보산, 남쪽에 홍림산, 서쪽에 청량산, 북쪽에 태백산을 거느리며 우뚝 솟아 넓은 지세로 호위산을 만들고 수백봉우리들은 침검의 뿔부리를 자랑하며 원조하였으니 후세에 영양인들의 문무겸전한 영재들을 배출할 것이며, 이는 가히 령산이라 한다. 흐르는 물은 일월산에서 발원이 되어 산수음양융합을 이루어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흐른다. 하나의 지류는 반변천을 이루면서 한번 돌고 한번 굽어 고리처럼 감싸면서 좌회우포로 우회좌포로 합금이 되어 수구를 향하여 흘러 입암면 연당리 부용봉산하의 선바위 밑 남이포에서 서성거린다.



그림 10. <일월산 전경>

다른 하나의 지류는 일월산 동화재 능선에서 시발된 수로가 흘러 청계천을 이루어 부용봉산하의 남이포에서 반변천과 합류하여 룡수용결을 하면서 청송군 진보면을 거쳐 갈지자형으로 흘러 낙동강의 대수계와 합류되어 수백리를 좌선우선으로 흐르기도 하고 좌곡선 우곡선하면서 바다로 유유히 흘러간다.

일월산은 곤륜의 맥을 이어받아 백두산을 조종산으로 하여 모든 길기를 모아 백두대간을 타고 남방으로 치닫고 내달아 곳곳에 혈장과 명당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일월산은 어머니가 아름다운 한복 치마를 입고 있을 때에는 교양 있는 여성이 좌우팔로 치마폭을 살며시 여며 잡고 앉아있는 형상이며 어머니의 젖가슴이 보일 듯 하면서 아기를 어르는 모양을 한 형상이기에 여자산이라 불리우고 있다.⁴⁰⁾

5. 안산의 풍수적 해석

호은종택의 집터 정면에 위치한 안산은 정삼각형모습의 문필봉이다. 호은종택 마당에서 신방 쪽에 위치해 있다. 오행을 따지면 목형산이다. 문필봉이 정면에 있으면 공부 잘하는 학자가 많이 나온다. 문필봉이 안산으로 있는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 그 안산에서 방출되는 기운을 받아 문필

40) 김진학, 전계서, p18, p27~29

가나 학자가 나온다고 믿었다. 조선시대에 문필봉이 보이는 터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땅값이 엄청 비쌌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민들은 꿈도 못 꾸었다. 특히 주실 앞에 보이는 문필봉 같으면 목형⁴¹⁾중에서 최상급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양이 뚜렷하고 방정하기 때문이다. 주실 마을 산세의 모든 정기는 이 문필봉인 홍림산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주실에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도, 박사가 14명이나 나온 것도, 인문학의 조씨 3인방도 이 문필봉의 정기와 관련이 있다. 주실 마을 대부분의 집들은 이 문필봉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다. 호은종택은 귀봉인 즉, 문필봉을 안산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조산은 갈미봉, 영적봉, 홍림산 독산 등이 서에서 동으로 차례로 늘어서 있다. 이 산의 흐름은 마을을 관통하는 물 흐름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적 기운을 동으로 이끈다.



그림 11. <호은종택 안산 문필봉>

41) 목형산은 정상부에서 꽃봉오리 모양을 이룬 산을 말하며, 수직상승하는 기운이 많은 산이다. 이 중세어도 산 정상부가 붓끝같이 뾰족한 산을 문필봉(文筆峰)이라 한다.

6. 수구의 풍수적 해석

수구란, 물이 한 지역의 낮은 부분에서 강이나 개천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을 말한다. 수구란 용의 끝과 물이 만나는 지점 곧 청룡과 백호가 열싸안은 곳을 용이 물을 마시는 입으로 본데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청룡과 백호 명당 앞면에서 서로 입을 마주대고 상대방의 물을 먹어 생기를 찾는다는 뜻에서 연유되었다는 설도 있다. 한 지역의 물은 모두 수구로 빠져나간다. 물이 흘러오는 것을 득, 흘러가는 곳을 파라고 한다. 수구는 물뿐이 아니라 바람도 빠져나간다. 수구가 산으로 막힌 지세에서는 물은 산을 돌아 빠져나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수구가 막힌 수구다. 이런 곳에서는 좋은 기가 쌓인다. 반대로 열린 수구에서는 물과 바람으로 생기가 빠져나가 건강과 재물, 명예를 잃게 된다. 명당인 곳은 막힌 수구이며 내수구의 수구가 모두 막힐수록 좋다.

풍수에서 수가 담당하는 기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명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한다.

둘째, 인간의 생존에 적절한 습도와 환경을 유지 시켜준다.

셋째, 인간이 생활화면서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 및 오폐물은 쓸어가고 정화기능을 갖는다.

넷째,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업용수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물은 명당 형성 여부, 명당의 대소 역량, 명당의 좋고 나쁨을 살피는 관건이었다.⁴²⁾

주실 마을 입구 솔밭에는 「빛을 찾아가는 길」이 새겨진 조지훈 시비가 답사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여느 계곡과는 달리 폭이 양쪽으로 활처럼 넓어졌다 다시 좁아지며 언덕을 이룬다. 마을은 호리병 형상이며 입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실 계곡의 폭이 펼쳐지는 곳에서 시작하고 다시 좁아지는 곳에서 마감한다. 주실마을은 이 계곡 한 가운데를 흐르는 장군천을 중심으로 일월산 쪽에 자리를 틀고 있다. 주실마을이 자리 잡은 계곡의 형상이 호리병과 같아서 계곡을 흐르는 물의 흐름 또한 호리병 물을 채웠다가 빼내는 것과 같게 된 것이다. 물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고 유속이 느리다.

장군천이 주곡교에 이르렀을 때 내수구는 정미파구로 숲이 수구막이로 형성되어 있다. 아마 비보의 목적으로 숲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 같다. 그리고 영양읍 쪽으로 몇 백 미터 전방에 외수구가 잘 교쇄되어 산과 수

42) 김두규, 『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1998, p192

가 역수로 된다. 이것은 대명당으로 길지라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주실마을의 수구>

7. 가옥의 배치와 구조

호은종택은 영양의 명산인 일월산에서 뻗어 나오는 3개의 지맥 중 제2봉의 맥이 내려온 끄트머리에 자리잡고 있다.

주산은 부용봉으로 산 가운데로 내룡이 내려왔으며 일수일정은 인, 이 절은 을이다. 집터는 와혈이고 집의 향은 남서향으로 배산임수다, 호은종택의 안산은 홍림산이라고 불리는 문필봉으로 대문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면 삼각형의 문필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호는 오른쪽으로 길게 돌아와서 안산으로 연결되고 내백호는 종택 우측으로 언덕을 이루어 잘 싸주었으며 청룡은 영양쪽으로 수구를 잘 교쇄하고 명당을 만든다. 내청룡도 내백호와 와혈의 기를 잘 감싸준다.

이 집은 조선중기인 인조(1623~1649)때 조정형이 건립하였으며, 한국전쟁 마을 안길에 대문채 사랑채가 별동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 몸매에 결합되어 있다. 영남 중남부 지역의 반가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공간 구성방식이다. 일체형의 ‘ㄱ자형’반가에서는 사랑채 사랑방과 안채 안방을 대각의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성리학 적 생활 규범에 따른 남녀 생활공간의 성적 분리를 실현하였다. 당시 일부 불탄 것을 1967년에 복구하였다.

호은종택의 대문채는 정면5칸, 측면 1칸 규모의 기와집으로, 중앙 칸에 대문을 달아 사랑마당과 몸채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몸채는 정면 7칸,

측면 7칸으로 정면과 측면의 칸살이 같다. 대문간에서 좌측으로 약간 비켜 뜰과 안채로 출입하는 중문간이 있다. 중문간 우측에서 두 칸 사랑방과 사랑마루가 놓여 있으며, 사랑마루 앞은 미세기 유리창을 달아 폐쇄하였다. 사랑마루에서 직각으로 꺾어진 곳에는 손님을 위한 작은 사랑방이 놓여있다.



그림 13. <호은종택>

중문간의 좌측편의 실 구성은 겹집형으로 서고를 앞에 두고, 뒤쪽에 창고와 화장실을 배설하였다.

중문간을 지나 뜰에 이르면 뜰에 면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안대청(6칸)이 한눈에 들어온다. 안대청 왼편에 안방, 오른편에 작은방과 고방을 배치하였다. 안방과 부엌이 좌측 익사를 형성하고 있고, 작은 방과 접한 비밀고방, 그 아래로 연결된 고방과 문간, 작은 사랑방이 우측익사를 형성하고 있다. 안채와 좌우익사 그리고 중문간 좌우의 서고와 사랑방의 배치형태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口자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대청의 앞에도 사랑마루와 같이 미세기 유리창을 달아 놓았다. 대청이나 마루 앞에 이러한 창호를 시설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향으로서 해방 이후 수리 또는 신축된 한옥에 많이 채택되었다.

이 집의 구조는 자연석 기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 또는 네모기둥을 세워 상부가구를 받는 형식이다. 대부분 네모기둥을 사용하였고, 안채 안대청과 사랑채 툇마루 앞과 같이 반가의 권위와 정면성을 나타내는 일부에만 두리기둥을 세웠다.⁴³⁾

안채의 상부가구는 3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와 첨차형 부재를 놓아 마루도리를 받았다. 기둥 상부의 주두 밑에는 보아지를 끼워 대들보를 받고, 처마에는 납도리를 사용하였으며, 장여와 창방 사이에는 소로를 끼워 수장하였다. 사랑채의 상부가구는 5량가로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를 받고, 기둥과 대들보의 결구부에는 보아지를 끼워 넣어 보강하였다. 사랑마루에는 정면과 우측면에 한하여 소로로 수장⁴⁴⁾하고, 좌우 익사의 상부가구는 모두 3량가로 간략히 처리하였다.

제5절 주실마을 호은종택의 풍수지리적 종합평가

경북 영양군 일월산 자락에 위치한 주실마을의 한양조씨 집안에서는 박사만 14명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명한 대학교수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 교수를 지낸 조지훈(趙芝薰·본명 동탁)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조동걸(趙東杰·국민대), 국문학 분야의 조동일(趙東一·서울대), 한국사의 조동원(趙東元·성균관대), 미생물학 분야의 조동택(趙東澤·경북대), 공학 분야의 조동성(趙東星·인하대), 경제학의 조성하(趙星河·고려대) 교수가 이 동네 출신이다. 조지훈의 아버지인 조현영도 한의

4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전계서, 2001, p200~p204

44) 용어해설

- 익사 : 주 건물의 좌우에 붙여 한집체로 지은 부속 건물.
- 막돌초석 : 막돌을 쓴 주춧돌.
- 첨차 : 살미와 십자로 짜여지는 도리 방향 공포부채.
- 보아지 : 기둥머리 또는 주두에 끼워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부채.
- 납도리 : 단면 형상이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된 도리, 네모도리.
- 장여 : 도리를 보강하기 위해 바로 밑에 평행으로 친부배.
- 창방 : 바깥 기둥을 한바퀴 돌아가면서 기둥머리를 연결하는 부채.
- 수장 : 구조재가 아닌 중방, 벽선, 반자 등 내부 수장이 되는 것.
- 5량가 : 도리가 5개 있는 지붕가구.
- 동자주 : 대들보나 중보 위에 올라가는 짧은 기둥.

학 분야에 이름 있는 학자였다.

주실의 조씨들이 식자층으로부터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조’를 중시하는 가풍이었다. 이 집안사람들은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집안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자존심을 버리고 체제 밑으로 들어가 굴복하는 것과 굶어 죽더라도 아쉬운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노선이었다.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삼불차(三不借)’라고 하는 가훈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다. ‘삼불차’는 세 가지를 빌리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재불차’(財不借: 재물을 빌리지 않는다),

‘문불차’(文不借: 문장을 빌리지 않는다), ‘인불차’(人不借: 사람을 빌리지 않는다)이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훈과 더불어 이 집안에 학자가 무더기로 배출된 원인은 풍수와 관련 있다고 많이 이들이 보고 있다. 주실마을의 370년된 종택 앞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문필봉이 인물배출의 진원지라고 본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실의 호은종택은 주실의 후면인 부용봉, 매방산과 전면인 갈미봉, 홍림산으로 둘러싸인 호리병 모양의 주실에 전후면의 산이 내는 기운이 상호 작용하여 주실다움의 기질을 조형하고 있고 전면의 갈미봉과 홍림산은 마을에 바짝 다가와 부용봉, 매방산과 직접 상호작용하기 위해 각각 문필봉과 독산을 마을까지 내려 보내고 있다. 그래서 부용봉, 문필봉이 전후로 작용하는 기운과 매방산, 독산이 전후로 작용하는 기운이 마을의 축을 형성하여 호리병 안의 생명을 숙성시키고 있다. 앞의 것은 호리병의 둥근 공간을 채우며 ‘지혜와 문필’의 기운을 조장시키고, 뒤의 것은 호리병을 통해 그 생명력을 ‘지조와 혁신’의 기운을 다시 한번 강화하여 세상에 내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앞쪽의 문필봉 형세가 주실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는 수단과 방법이라면 부용봉, 매방산의 형세는 그것을 밀어주고 조정하는 동력원이고 방향타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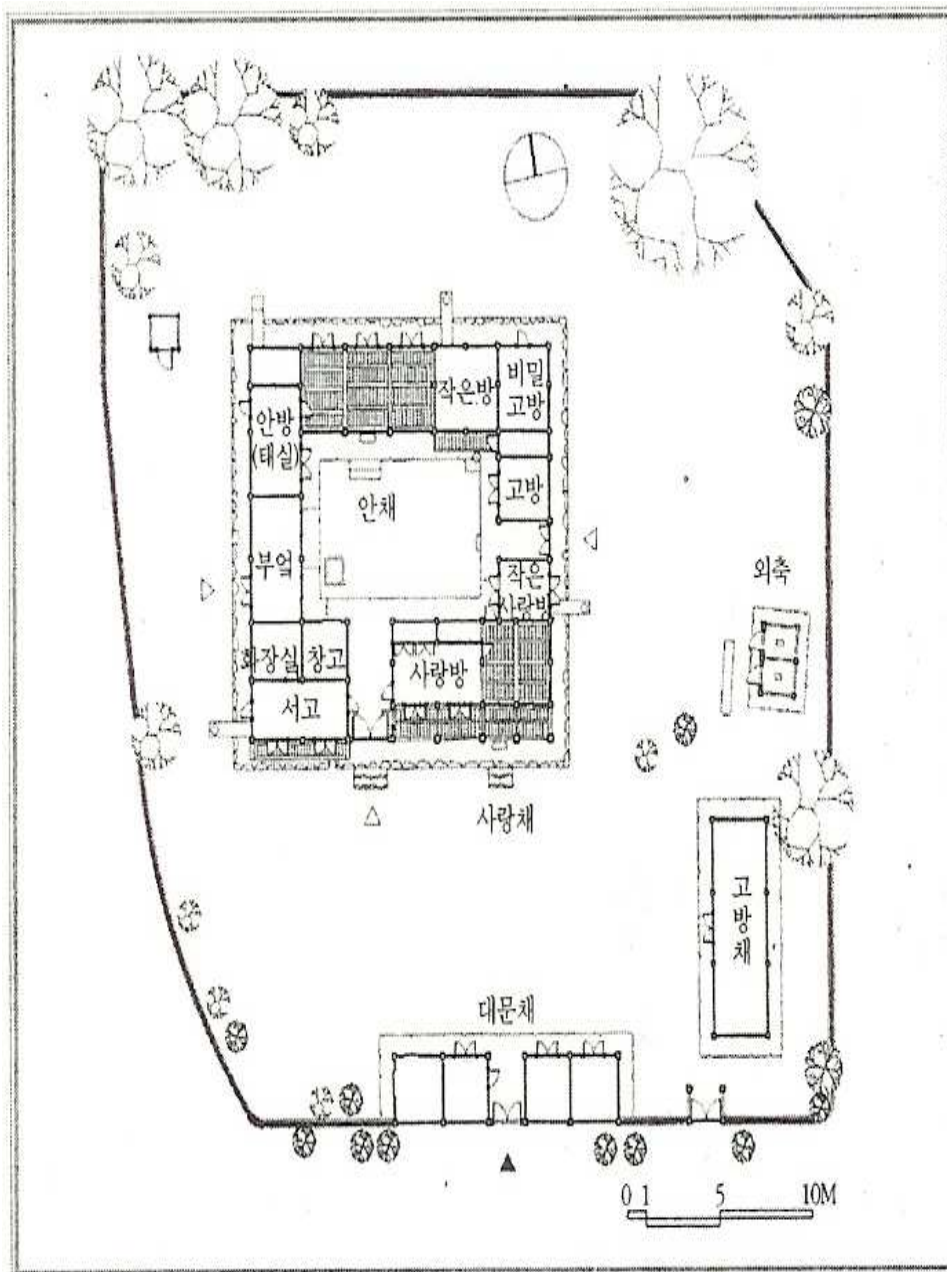


그림 14. <호은종택 평면도>

제Ⅵ장 경북 경주 최부잣집

제1절 최부잣집의 내력

1. 가계

경주 최씨는 신라 말의 명현 최치원(崔致遠)을 시조(始祖)로 하여, 그의 11대 손인 청백리(淸白吏) 사성(司成) 최예(崔訥)를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그 후 청백리 예의 6대손인 최진립(崔震立)때에 사성공파(司成公派) 중 가암파(佳巖派) 일명 정무공파로 분파(分派)되었다.

그리고 이 가암파는 정무공 최진립의 삼남인 현감(縣監)을 역임한 최동량(崔東亮)이 제삼파조(第三派祖)가 된다.

그 후 교동으로 이거(移居)한 최기영 이후 문과공가(汶坡公家)를 이룬다. 교동에 세거한 최씨의 조상 최진립은 원래 경주시 건곡면 하구리 구미산하 일대에 세거하다가 어머니 황씨가 서거하자 세 살 때(조선조 중기)에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로 이거하였으며 직계조 최의기 이후에도 대대로 이조리에 세거하다가 조선조 순조때에 최기영이 현재의 교동으로 입향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주최씨의 가암파시조(佳巖派始祖)로부터 문과공(汶坡公)까지의 계통(系統)은 다음과 같다.

최진립(崔震立)→동량(東亮)→국선(國璿)→의기(義基)→승렬(承烈)→종률(宗律)→언경(彦暲)→기영(祈永)→세린(世麟)→만희(晩喜)→현식(鉉軾)→준(浚)

2. 부의 형성



그림 15. <최부자집의 창고>

최부자의 만석의 재산은 논 소유규모로는 약 1,000정보(300만평)의 땅이며, 실제 최부자의 농토는 동으로는 현재 경주 감포읍 지역인 동해안과, 서로는 경주시 서면 아화리지역(영천접경지역), 남으로는 울산시 두동면과 두서면지역, 북으로는 경주시 안강읍지역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었다.⁴⁵⁾

만석은 지금의 가마니로 쌀이 약1만 가마니가 될 것으로서 그 당시로는 막대한 재산이니, 만석꾼은 엄청나게 큰 부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만석은 연간 소작료(小作料) 수입(收入)이 만석이라는 뜻이다. 지금과 같은 기업이 없던 시대임으로 농토 소유자가 농토를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소작료를 거두어들일 때 추수한 량에 따라 천석군·만석군이라 불렀다.

최부자 가문의 부의 형성은 최진립 또는 최동량이 천석정도의 부를 축적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⁴⁶⁾ 그것은 최진립의 서모 강씨의

45) 최해진, 「최부자 경영사상의 현대적 조명」 동의논집 제 30집, 1999, p.696

친정이 부자라서 친정으로부터 받아 온 많은 재산을 동량이 관리했다고 한 것에서 근거한다.⁴⁷⁾ 그러나 최진립이 장렬하게 순국(殉國)하니 시체를 거두어 관을 싣고 고향 이조리로 돌아왔으나 집이 가난하여 장사(葬事)하지 못한 점으로⁴⁸⁾ 보아 최진립의 당대나 최동량 때에도 큰 재산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최부자로 불린 최초의 사람은 최국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국선은 청백리 최진립을 조부로, 현감을 역임한 동량을 선친으로 하여 인조 신미 1631년 음력4월 3일, 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조선조 숙종 때 사옹원(司饔院)의 참봉(參奉)을 지닌 미관말직(微官末職)이었으나 임금의 수라상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 충신의 자손이 아니면 쓰질 않는 자리로서 가문의 영광이나, 궁색한 집안을 돌보기 위하여 낙향하였다. ⁴⁹⁾

제2절 최부자집의 철학과 경륜

1. 유 훈

최부자집은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경주에서 3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풍수적인 요인과 함께 이들 가문의 독창적인 유훈을 지켜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손들이 이 가르침을 어기고 벼슬을 탐했거나 과욕을 부렸다면 최부자집이 9대 동안 진사를 지내고 12대 동안 만석을 한 집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최부자집의 유훈으로는 가훈·가거십훈·육연 등이 있는데, 가거십훈과 육연은 수신(修身)을 위한 가훈이라 할 수 있으며, 최부자집만의 특별한 여섯가지 가훈을 가지고 있다. 최부자집 가문의 재물운용의 독특한 가훈은

46) 이수락, 최부자집의 가훈(1994), 나눔터 겨울(동천9호) p.5

47) 최채량 선생의 증언, 가암과 최씨의 주손(胄孫)으로서 충의당(忠義堂)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 은퇴 후 가암서당에서 후학(後學)을 가르치는 한학자(漢學者).

48) 경주최씨종친회, 「교동의 얼」 (1998),p.40

49) 사옹원(司饔院)은 궁중에서 임금의 음식을 담당하던 부서이다. 최국선은 바로 이 부서에 근무할 때 배운 수를 낙향하였을 때에 담귀 귀한 손님이 올 때에나 제사 때에 사용하였다. 오늘날 교동법주는 그가 사옹원에 있을 때 배워온 궁중에서 사용하던 왕실 전용의 술로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비법을 전수 하면서 가주(家酒)로 빚어 사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최해진, 전계논문(1997). p.339>

오늘날 의미로 본다면 경영이념 내지는 경영철학이라 할 수 있다.⁵⁰⁾

이러한 가훈을 통하여 최부잣집의 경영사상이 대대로 전승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⁵¹⁾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눔의 기쁨을 실천한 최부잣집의 가훈은 일부 부유층의 비뚤어지고 이기적인 가치관과 잃어버린 도덕성에 일침을 가하는 훌륭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2. 가 훈

최부잣집의 가훈은 가문 내에서 지침(指針)이었기에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규재(1981)의 세 가지의 가훈을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수락(1994)이 세 가지를 추가(追加)하여 여섯 가지의 가훈을 소개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여섯 가지 가훈을 보면,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이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즉 최씨 집안에서는 진사 정도를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 보고 이를 넘어서는 벼슬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조선시대는 당쟁이 심한 사회였으므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는 것은 당쟁에 휩쓸리기 쉬워지고 멸문지화의 가능성에 접근하는 모험으로 본 것이다. 벼슬의 종착역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꿰뚫어본 데서 나온 통찰력의 산물이 바로 이 가훈이었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다. 만석이 넘으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그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였는데 그 방식은 소작료를 낮추는 것이었다.

셋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다. 최부잣집의 1년 소작 수입은 쌀 3천석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1천석 정도를 과객 접대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당시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이는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최 부잣집에 과객이 많이 머물렀을 때는 그 숫자가 100명을 넘기도 했다고 한다.

넷째는 흥년에 논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헐값으로 논을 사는 재산증식 행위는 결국 사람들의 원한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으로 본 것으로 최씨 가문의 도덕성과 고준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가훈

50) 전진문, 「경주 최부자의 기업유지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2001), 「경영연구」제16권 제3호, p278

51) 최해진, 전계논문, 1997, p340

이다.

다섯째 원칙은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이다. 실제 집안의 살림은 여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근검절약을 익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노비(奴婢)와 똑같은 무명옷을 입어 차별화를 하지 않았다.

여섯째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사방 100리라면 경주동해안 일대에서 서로는 영천까지이며, 남쪽으로는 울이산이고 북으로는 포항까지의 영역이다. 최부잣집의 소작 3천석 중에서 1천석을 주변의 빈민구제에 사용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

이것이 최씨가문의 가훈이었는데 살펴보았듯이 혼자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상생의 원리를 일찍이 깨닫고 이를 실천하였다. 그러기에 삼대를 넘기기 힘들다는 만석꾼을 12대동안 이어 온 것이 틀림없다.

3. 육 연(六然)

육연은 수신을 위한 가훈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올바른 자세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행동적 교훈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⁵²⁾

자처초연(自處超然) : 스스로 초연하게 지내고,

대인앵연(對人靄然) :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하며,

무사징연(無事澄然) : 일이 없을 때에는 맑게 지내며,

유사감연(有事敢然) :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처하고,

득의담연(得意淡然) : 뜻을 얻었을 때에는 담담하게 행동하며,

실의태연(失意泰然) : 실의에 빠졌을 때에는 태연하게 행동하라.

최부자집의 자손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 조부모님이 보는 데서 이 육연을 써야만 했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군자다운 행동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했다고 한다.

52) 전진문, 전계논문(2001), p.280

제3절 교동 마을의 풍수지세

최부자 가문의 풍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300년간의 부를 유지한 기간중 반을 보낸 이조리 마을과 나머지 반을 보낸 교동집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동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주최씨 집성촌인 경주 교동 마을은 조선시대 때 향교(鄕校)가 있다고 해서 향촌(鄕村)으로 불려오다가 면제실시(面制實施)에 의하여 교촌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남쪽으로 향해 있는 교동 마을 뒤는 수백년이 된 고목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넓은 구릉지대가 배경으로 되어 있고 마을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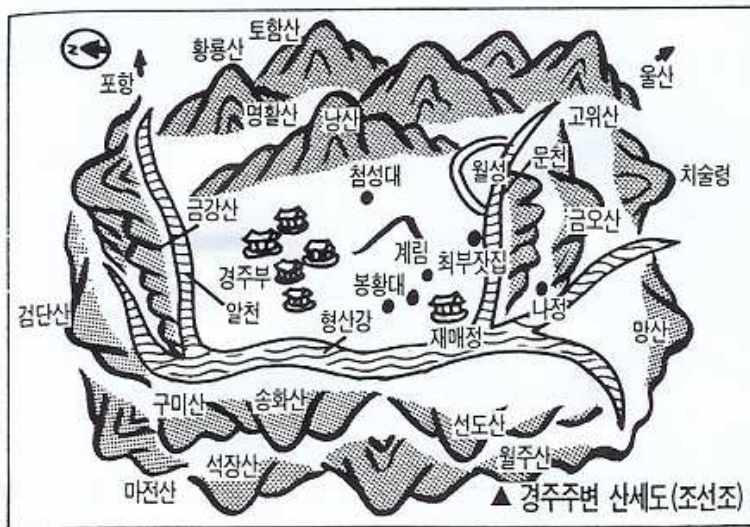


그림 16. <경주주변산세도>

은 신라시대부터 이름난 문천(蚊川)이 오늘날도 흐르고 있으며 경주 남산(금오산)이 멀리 바라보이고 있다.

동쪽에는 반월성(半月城)과 계림(鷄林)숲, 그리고 경주(慶州) 향교가, 서쪽에는 김유신 장군의 고택유적이 가까이에 있다.

요석공주가 설총(薛聰)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는 매우 유서 깊은 마을이기도 하다.⁵³⁾

이러한 교동마을의 중심부에 경주 최씨의 교동집이 자리잡고 있다.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서 최기영이 최의기 집을 헐어서 교동으로 이건하여

53) 경주최씨종친회, 전게서, p1

지은 집은 현재 교동집의 바로 옆집(현재 교동법주 기능보유자의 집)이며, 두 집은 교동 69번지 한 필지로써 담장 하나를 사이로 붙어 있다.

부가 팽창되고 가식들이 늘어나고 또한 과객들의 빈번한 내방으로 인해 집안이 협소하여 불편하고 활동장소가 시골이라 이사 갈 장소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최기영이 집터를 구하기 위하여 전국으로 순회하였다.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유학자들이 풍수에 상당히 소양이 깊었듯이 최기영도 풍수에도 조예가 깊었다. 경주일원은 물론 안동, 수원 등 곳곳으로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고향인 이조리와 가깝고 벼슬을 멀리 하라는 가훈을 지키고 자손의 번창⁵⁴⁾과 부가 유지되는 터를 구하다 보니 교촌의 요석공주궁터 일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교촌의 터는 관운은 없으나 자손과 부가 있으니 조상의 가르침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선조 순조년대에 최기영(1768~1834)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 세린·시구와 함께 교동계조인 의기의 집을 모두 뜯어서 이조리에서 교동으로 이건하였다.⁵⁵⁾

현재의 사당자리를 중심으로 동편(최부자집)에 주 건물을, 서편(교동법주집)은 부속건물을 지을 의도였으나, 향교 때문에 교동법주집을 먼저 지었다. 향교 대성역 옆에는 민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향의 불문을 때문에 향교 바로 옆을 피하여 지은 것이다. 최의기 집을 뜯어온 것은 부가 크게 일어난 집이고,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헌집을 뜯어서 옮긴다는 핑계를 대기 위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향교를 의식하여 뜯어온 의기의 본래의 집 규모를 줄이고 기둥을 한자 자르고 집터 또한 뒤를 더 파내서 향교보다 낮게 지었다.

현재의 교동법주집에 약 40~50년 거주하다가 최세린이 집을 향교 바로 옆으로 지어서 이사가니⁵⁶⁾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이다. 부가 커지고 선행을 베풀다 보니 차츰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향교를 설득하여 향교 바로 옆으로 집을 지으니 지금의 교동집이다. 그러나 이 역시 향교보다 기둥을 낮추고 땅을 파내서 낮게 지었다. 중요 민속자료 27호 이기도한 교동집, 최부자집은 구자(口字)모양의 건물로서 원래는 아흔아홉칸짜리 한옥이다. ㄱ자형 사랑채와 ㄷ자형의 안채, 一자형 문간채(행랑채)를 연속하여 지었고, 서당으로 사용하던 별당과 천석곡간, 사당을 따로 건축하였다.

54) 최의기 이후 후손이 귀하였음. 최기영의 아버지 언경은 사종형 종만의 아들로서 양자로 입계함.

55) 이러한 사실은 교촌의 최부자집 대택 사랑채가 1971년 소실되면서 나온 기와에서 건립년도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교동의 열, p.2)

56) 경주최씨종친회, 전게서, p.60

사랑채와 별당은 1971년 11월 22일 화재로 소실되어 안채·문간채·사당과 천석곡간만 남아 있다. 평면구조가 경상도 지방의 전형적인 양반가옥 모습을 지니고 있다. 건물 채목들도 일반 가옥에서는 보기 어려운 좋은 채목을 썼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도 뛰어나다. 안채의 기둥은 원기둥(둥근기둥)을 세 개 사용하여 교동집이 상류 주택임을 보여 주고 있다.

제4절 최부자집의 풍수지리적 분석

1. 남 산

경주는 사방에 산이 포진해 있다. 동쪽으로는 명활산, 서쪽으로는 옥녀봉과 선도산(서악), 남쪽으로는 금오산(남산), 북쪽으로는 금강산(북악)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이들 산에는 각기 견고한 산성을 축조하여 도성 방어에 대비하였다. 산이 많은 경상도 산세 중에서 김해평야를 제외하곤 경주 주변만큼 넓은 들판이 있는 곳도 드물다. 물도 충분하다. 남천고 북천이 경주 중심지를 거의 ㄷ자 형태로 둘러싸면서 흐르고 있다.

경주의 산세에서 특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남산이다. 경주에서 남산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불교가 국교였던 신라 사회에서 불교 유적 대부분이 남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신라 사람들이 남산을 정신적인 중심으로 간주했다는 표시이다. 남산에는 불(佛)보살이 상주하고 있고, 그 힘으로 신라와 경주가 번영한다고 믿었다. 남산은 신라인들에게 종교적 신앙의 산이자, 보통 산과는 다른 영적인 산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남산을 중요시 하였던 것은 우리의 주거 문화가 남향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남쪽이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궁궐이나 집터는 남향을 선호하였다. 경주에서 남쪽을 향해 집을 지을 때 정면 앞산에 해당하는 산이 바로 남산이다. 정면 앞산이란 안대(案帶)에 해당하므로 남산은 자동적으로 안대가 된다. 안대는 집의 대청마루에서 쳐다볼 때 정면에 보이는 산이라서, 보지 않으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매일 보게 되는 산이다. 사람이 365일 계속해서 어떤 산을 쳐다보다 보면 무의식중에 심리적으로 그 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안대는 중요하다. 또 하나는 한자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군남면(人君南面)사상과 관련 있다. 군왕은 얼굴을 향할 때 반드시 남쪽에 향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반월성도 그렇고 서울 경복궁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경주에서 남면하

면 앞산은 남산이 된다. 경주의 남산이나 서울의 남산이나 이러한 맥락에서 명명된 이름이다.

이외에 경주 남산이 그리 높지는 않아도 바위가 노출해 있어서 단단해 보이는 산이라는 점도 작용하였다.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위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동쪽의 명활산, 서쪽의 선도산, 북쪽의 금강산과 비교해 볼 때 남산은 바위가 현저하게 노출한 산이다. 바위산은 일단 기가 센 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기가 세다는 것은 종교적 영험이 충만함을 의미한다. 경주 남산은 인군남면의 안산(案山)이자, 동시에 기가 센 바위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 배산임수(背山臨水)

최부잣집을 보면 임수(臨水)는 되어 있는데 배산(背山)이 안 되어 있다. 집 앞에 흐르는 모내천 1천 300년 전 원효대사가 다리에서 미끄러져 옷을 적셨다는 유서 깊은 냇물로서 임수에 해당한다. 동쪽인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의 낭산과 남산 사이로 흘러오다가 반월성 부근에서 각도를 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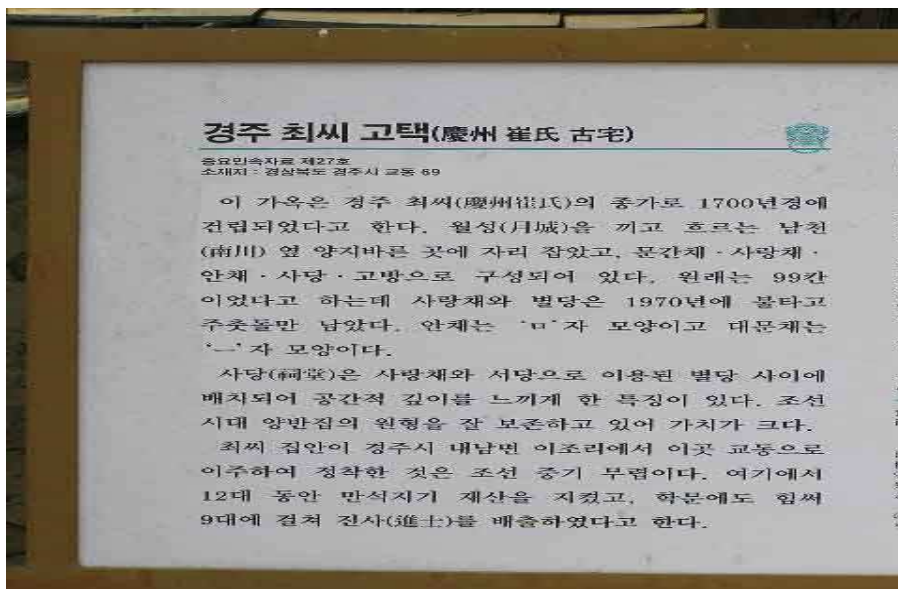


그림 17. <경주최부잣집 앞에 있는 고택 안내문>

고, 반월성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한 번 모였다가 다시 최부잣집 앞을 거쳐 서쪽으로 돌아 흘러간다. 최부잣집에서 보면 동출서류(東出西流)이다. 집 앞에 물이 흘러야 돈이 생긴다.

임수는 이 정도면 되었는데, 집 뒤의 배산이 보일질 않아서 이상하다. 대체적으로 명택들은 뒤에서 내려오는 배산(來龍)이 튼튼한 편인데 이집은 내룡이 확실치 않다. 야트막한 둔덕으로 내려와서 언뜻 보면 평지가 가깝다.

집 뒤 밭에는 아름드리 괴목들이 수십 그루 들어서 있었다. 집 뒤의 허함을 비보(裨補)하기 위하여 심어놓은 나무였다. 요석궁 터인 이 집은 내룡이 야트막한 둔덕이라서 뒤가 허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석궁 터를 집터로 일단 잡아 놓고, 집을 짓기 수년 전에 미리 집 뒤에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한다. 나무 중에서도 수명이 오래 가는 괴목을 선택해서 심었다. 뻗뻗할 정도로 밀집된 괴목 숲이라면 뒤에서 불어오는 북풍을 어느 정도 차단할 듯하다. 보통 다른 집에서는 집 뒤에 대있을 때 바위산에서 풍기는 살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살용(防殺用)이다.

나무를 심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룡이 험한 바위산으로 되어 괴목에 비해 대나무는 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괴목은 성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장기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대신 성장하기만 하면 대나무보다 훨씬 품격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나무보다 키도 크고 굵게 자라므로 방풍 효과도 크다.

최부잣집 터를 자세히 보면 바로 옆에 위치한 향교보다 약간 낮게 자리 잡고 있다. 200년 전 공터였던 이곳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향교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신성한 향교 옆에 민가가 들어서면 향교의 품위가 손상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향교의 반대로 목재만 쌓아놓은 상태에서 몇 년 간 집을 짓지 못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고명한 선비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향교를 설득해 주었다. 맹모삼천(孟母三遷)이라는 고사를 예로 들어 옛날에도 향교 옆에 민가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러니 최씨들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선비 덕분에 최씨들은 향교 옆에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대신 집을 지을 때 향교를 의식해서 향교보다 터를 낮게 깎아내고 지었다. 현재 주춧돌을 살펴보면 향교보다 두 계단 정도 낮다. 높을수록 권위가 있음을 상징하므로 민가가 향교보다 높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안채 뒤를 살펴보면 땅을 깎아 낸 흔적이 보인다. 원래의 자리에서 3미터 정도

는 흙을 깎아내고 집을 지은 흔적이 있다. 이는 향교보다 낮게 짓기 위해 서이기도 하지만, 내룻이 평평하게 내려와서 뒤에 떠받쳐주는 맥이 약하니까 그 대신 터를 전체적으로 깎아서 바닥을 낮추었고, 바닥이 낮아지니 자연히 집 뒤의 둔덕은 높아지는 효과를 본 것이다. 결국 원래 바닥을 3미터 정도 깎아내고 집을 지은 것은 내룻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풍수적인 비보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룻이 약하다고 해서 이집이 맥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집 앞 문천을 건너 앞산에 올라가 이 집터의 국세(局勢)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동쪽의 반월성 쪽에서부터 용맥이 구불텅구불텅 한참을 내려와 계림을 지나 최 부잣집 근처에서 멈추었음이 확연히 나타난다. 내룻이 야트막한 둔덕으로 내려와, 약하기는 하지만 맥을 이어 최 부잣집에 뭉쳐 있음이 확실하다. 57)

3. 안산의 풍수적 해석

풍수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집의 최대 강점은 집 앞의 안대가 아주 좋다는 점이다. 이집의 좌향(坐向)은 임좌(壬坐)이다. 임좌는 남향을 향하게 되어 있고 남산이 안대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최 부잣집은 정확하게 남산으로 안대로 삼은 집이다.

그리고 가까운 쪽으로는 도당산 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야산이 겹으로 안대를 구성하고 있다. 대문 앞에서 쳐다보면 도당산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너머로 세 봉우리 끝 부분이 도당산 너머로 보인다. 도당산과 남산이 겹쳐져서 이중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도당산과 남산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이 집에서 쳐다볼 때에는 거의 겹친 것처럼 보인다.

앞의 도당산 모습도 재물과 관련이 있다. 말밭굽처럼 ㄷ자 형태로 생긴 야산이다. ㄷ자의 터진 쪽이 집 앞과 일치되어 있어서 재물이 새나가지 않고 쌓이는 형국이다. 도당산 같은 형태를 곡식을 쌓아놓은 창고사(倉庫砂)로 보는데, 말밭굽형 창고사는 그중 최고로 친다. 그런가 하면 도당산 너머로 남산의 세 봉우리가 넘어다 보인다. 세 봉우리의 모습은 둥그런 금체(金體)에 가깝다.

57) 조용현,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2, p56~p58



그림 18. <최부자집에서 본 조산과 안산의 모습>



그림 19. <교동법주집 사랑채에서 본 조산과 안산>

금체에서는 귀인이 나온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금체 봉우리의 모습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금체봉이 똑바로 서 있었으면 귀(貴)가 더 높았을 것이다.

창고사 위에 금체가 겹쳐 서 있는 형국의 안대는 대단히 희귀한 안대임이 틀림없다. 재물과 귀가 겹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안대가 바로 최부잣집 안대이다.

4. 건물의 구조

최부잣집의 마당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채에 놓였던 화강암 주춧돌들을 바라보니 격조와 품격이 느껴진다. 사랑채에 올라가는 계단과 둥그스름한 기둥 받침대가 모두 붉은색이 약간 감도는 경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가에 이처럼 원형의 화강암 주춧돌을 사용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마치 큰 절터나 궁터를 보는 느낌이다.



그림 20. <최부잣집 안채의 모습>

원래 이 집은 아흔아홉 칸에 부지 2천여 평, 1만여 평의 후원까지 있었다. 이집에 살던 노비만도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1961년에 방앗간, 외양간 등이 헐려 마흔일곱 칸으로 줄었고, 노비들도 거의 자유의 몸이 되어 살림을 나간 상태였다고 한다. 지금은 더 줄어들어 사랑채가 1970년도에 화재로 불타서 주춧돌만 남고, 안채와 문간채 창고만 남아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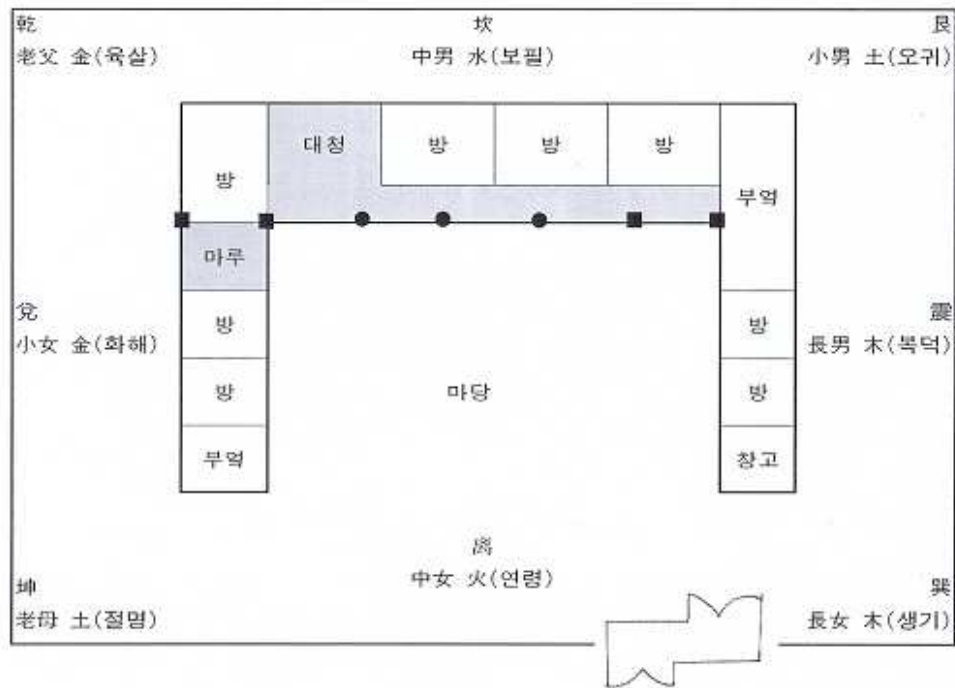


그림 21. <안채배치도>

제5절 경주 최부잣집의 풍수적 위치에 대한 종합분석

경주 최부잣집은 9대 진사, 12대 만석꾼으로 불리며 약300년 동안 부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흔치 않은 일이다. 최부자가 긴 세월 동안 부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부자 가문의 독특한 가훈을 실행하면서 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림 22. <최부잣집의 모습>

흉년기(凶年期)에는 재산을 늘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救恤)하였고, 평상시에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으며, 소작료 수입이 만석이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낮추었다. 또한 지나가는过客들을 후하게 대접하였으며, 자손들에게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교만과 사치를 멀리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였다.

최부잣집의 부의 형성과 유지에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상생의 원리가 깊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풍수적인 위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부잣집의 고택은 경북 경주시 교동에 위치하며 현재 중요민속자료 제 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요석궁터(瑤石宮址)라 전해오는 길지이다.

경주의 주산인 토함산에서 내려온 기(氣)가 명활산과 남산을 만든 후 평지의 논·밭을 지나 반월성을 이룬 뒤 나머지 기운이 계림 앞에서 작은 산을 만들고 거기서 내려온 맥(脈)이 청룡과 백호를 분화해 놓았으며 그 가운데에 집터가 자리한다. 특히 크게 집 뒤를 감싸며 내려온 백호자락이 집 앞을 감싸안아 생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으니 큰 부자가 되게 한다.

한편, 물은 반월성을 휘감고 흘러온 문천(남천, 모기내)이 집 앞을 감싸듯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東出西流)가 경주의 요대수(腰帶水)가 되는

형산강에 이른다.

문천에는 아담하게 솟아오른 부드럽고 포근한 망산(226m, 선도산의 오른쪽에 있다)이 창고 모습을 띠고 막고 있으니 부를 기약해 준다.

특히 집 앞의 논은 층층을 이루면서 조래수(朝來水)를 형성, 집 앞으로 쏟아져 재물을 모으게 한다.⁵⁸⁾

안산과 조산의 형태는 주택의 길흉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산인 집 앞의 야트막한 도당산(95m)이 병풍을 이루었고, 거문성(토성)형태의 도당산이 부의 기를 집을 향하여 계속 보내주고 있으니, 큰 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한다. 도당산은 매우 신성시(神聖視)되던 봉우리로 신라 초기에 국사를 의논하던 아주 중요한 곳으로 현재 토성도 남아 있다.

그리고 도당산 너머로 남산의 세 봉우리가 조산으로 이 집에서 쳐다볼 때는 거의 안산과 조산이 이중으로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다.

조산인 남산의 세 봉우리도 무곡성(丙方), 탐랑성(가운데), 거문성(午方) 형태로 훌륭하다.

그러나 탐랑성 봉우리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거문성 토성체는 희미하다. 그러므로 관운은 없다.

최부잣집 터는 배산(背山)은 약하지만 요석궁터라는 것과 집앞에 물이 감싸고 조산(朝案)의 모습이 훌륭하여 집터를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제Ⅶ절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명문가의 형성 존재에는 사회·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구체적으로 풍수적인 어떤 요인이 오늘날 까지 인정받는 명문가를 유지하는데 필수 요인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남지역의 명문가인 영양 주실마을의 한양조씨 호은종택과 경주 최부잣집의 내력, 가훈, 지세분석, 건물배치, 인재들을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두 명문가의 풍수지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실의 호은종택은 주실의 후면인 부용봉, 매방산과 전면인 갈미봉, 홍

58) 최영주, 전계서, 1999, p.164

림산으로 둘러싸인 호리병 모양의 주실에 전·후면의 산이 내는 기운이 상호 작용하여 주실다움의 기질을 조형하고 있고, 전면의 갈미봉와 홍림산은 마을에 바짝 다가와 부용봉, 매방산과 직접 상호작용하기 위해 각각 문필봉과 독산이 마을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부용봉, 문필봉이 전후로 작용하는 기운과 매방산, 독산이 전후로 작용하는 기운이 마을의 축을 형성하여 호리병 안의 생명을 숙성시키고 있다. 앞의 것은 ‘지혜와 문필’의 기운을 조장시키고, 뒤의 것은 ‘지조와 혁신’의 기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앞쪽의 문필봉 형세가 주실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는 수단과 방법이라면 부용봉, 매방산의 형세는 그것을 밀어주고 조정하는 원동력이고 남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 최부잣집의 집터는 경주의 주산인 토함산에서 내려온 기가 명활산과 남산을 만든 후 반월성을 이룬 뒤 나머지 기운이 계림 앞에서 작은 산을 만들고 거기서 내려온 맥이 청룡과 백호를 분화해 놓았으며 그 가운데 집터가 자리한다. 특히 크게 집 뒤를 감싸며 내려온 백호 자락이 집 앞을 감싸안아 생기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막으니 큰 부자가 될 지세라 할 수 있다. 안산인 집 앞의 야트막한 도당산이 병풍을 이루었고, 거문성형태의 도당산이 부의 기를 집을 향하여 보내주고 있어 큰 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한다. 그리고 도당산 너머로 요염한 형태의 남산의 세 봉우리가 조산으로써 이집에서 볼 때는 안산과 조산이 이중으로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다. 특히 조산인 남산의 세봉우리는 병방(丙方) 무곡성, 가운데 탐랑성, 오방(午方) 거문성 형태로 훌륭하나 탐랑성 봉우리가 약간 기울고 거문성 토성체가 희미하여 관운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부잣집의 터는 배산은 약하지만 요석궁 이라는 것과 집 앞에 물이 감싸고 있으며 조산과 안산의 모습이 훌륭하여 집터를 잡은 것 같다. 가옥의 경우도 배산이 약하여 작은 구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괴목을 수십 그루 심기 까지 하여 배산의 형태를 이루었으며 집 앞에는 강물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배치를 하고 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햇볕을 모두 받고 전망이 트인 대지 위해 집을 지었다. 택지의 모양이 정방하여 길택지의 형태를 이루고 마당 역시 정사각형으로 대문을 향하여 들어오는 바람이 잘 회전하여 부의 기를 불러들인다.

위의 두 명문가는 집터에서 바라보는 안산과 주산의 형태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주실마을의 경우 전국 최고의 문필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주실의 인걸들은 문필봉의 기운을 받고 자

랐다고 해도 될 듯 싶다. 경주 최부잣집의 경우도 조산인 남산의 세 봉우리가 뛰어나 부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명문가에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가훈이 있었다. 영양 주실의 한양 조씨들에게는 지조와 지혜의 ‘삼불차(三不借)’가 그렇고, 경주최부잣집에는 상생의 원리와 절약정신이 내재되어있는 여섯 가지 가훈이었다.

부와 학식을 겸비한 명문가의 형성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들만의 철학과 경륜이 있었던 것이다.

대학자나 선비를 배출하는 지세에는 뛰어난 문필봉이 존재하였으며 이와 같은 명문고택들의 형성에는 사신사로 짜여진 명당국이 필수조건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학위논문

- 강희정, 「주실마을 근대문화 수용과 전통문화의 변화」,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박영목, 「전통풍수사상과 주거입지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서문종, 「서울의 地勢와 宮闕 立地에 대한 風水地理學的 分析研究 :景福宮,昌德宮,宗廟를 中心으로」, 한성대학교부동산대학원석사논문, 2004
- 성백준, 「풍수사상의 측면에서 본 주거지 입지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선우, 「경주 최부자가문 형성에 미친 풍수지리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인옥, 「영양주실의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학술논문

- 전진문, 「경주최부자의 가업유지와 경영이념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제16권 제3호, 2001.
- 최해진, 「경주최부자의 경영사상형성배경과 내용에 관한 연구」, 동의논집 제28집, 1998.
- 최해진, 「최부자경영사상의 현대적 조명」,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 동의논집 제30집, 1998.
- 최해진, 「경주최부자의 경영사상과 경제적 부의 지속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997.

3. 단행본

- 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강영수, 『풍수로 보는 가문』, 서울 : 중명, 1997.
- 경주최씨종친회, 『교동의 얼』, 1998
- 김광제, 『신 풍수 답사기』, 서울: 지성문화사, 2001
- 김두규, 『우리 풍수 이야기I』, 서울 : 북하우스, 2003.
- 김재식·김기문, 『경주 풍물집』, 보우문화재단, 1991.
- 김진학, 『일월산의 지맥과 풍수』, 대구:중외출판사, 2003
- 김창진 외5, 『한국의 풍수문화』, 서울 : 박이정, 2002..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서울 : 일빛, 1999.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 연구소, 『영양 주실마을』, 서울: 예문서원. 2001
- 이문호, 『팽슈이 사이언스』, 서울 : 도원미디어, 2003.
- 이해준·김인걸 외, 『조선시기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장영훈, 『영남의 풍수』, 서울 : 동학사, 1995.
- 전신용, 『한국의 풍수문화』, 서울: 박이정, 2002
- 정경연, 『정통 풍수지리』, 서울 : 평단문화사, 2003.
- 조용현,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서울: 푸른역사, 2002
-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 영남지방 비보경관의 양상과 특성』, 서울:민속원, 2004
-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영남지방 비보경관의 양상과 특성』, 서울 : 민속원, 2004.
- 최창조, 『풍수잡설』, 서울 : 모멘토, 2005.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믿음사, 1989,
- 한동환, 『풍수사상과 환경』, 서울 : 환경과 생명, 1995.

4. 기 타

권용환, 『영양군지』, 정각당, 1998,
김두규, 『동아주간』 406호, 2003
이수락, 『최부자집의 가훈』, 나눔터, 겨울호(동천9호), 1994

4. 인터넷 웹사이트

경주시청 (<http://www.gyeongju.go.kr>)
기풍수연구회 (<http://www.noblsite.com>)
문화기행 '풍경과 상처' 카페 (<http://cafe.naver.com/cotour>)
박시익 교수의 풍수지리와 건축 (<http://www.feng-shui.pe.kr>)
박정희대통령인터넷기념관 (<http://www.516.co.kr>)
부국풍수지리연구원 (<http://www.pung-su.com>)
(사)대동풍수지리학회 (<http://www.21fengshui.com>)
(사)전통풍수지리학회 (<http://www.poongsoojiri.org>)
(사)한국자연지리학회 (<http://www.ps21c.com>)
생활풍수지리 (<http://www.fengshuikorea.co.kr>)
서울풍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syhanna>)
성동환의 풍수기행 (<http://www.feng-shui.or.kr>)
영남일보(<http://www.yeongnam.co.kr>)
영양군청 (<http://www.yyg.go.kr>)
종합역학대학원 카페 (<http://cafe.naver.com/sunra>)
중앙일보(<http://www.joins.com>)

ABSTRACT

The Consideration of Topographical Favorable Location at distinguished old house in Young Nam region

Lee, Se-In

Major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al state

Hansung University

The *Feng-shui* (topographical favorable location) is the wisdom of life which is based on careful insight for nature as well as the perception accumulated by ancestor for a long time. "*Feng-shui*" is obeying the stream of cosmic environment which is named as "Ki" and is interested in both environmental factor like geography, climate etc and how to harmonize with the living surroundings of human. W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regarded when our ancestor decided the living place?

First choice was the health. Basically, to keep the health life is based on the health of the place. And then how will be the health place? Firstly, it is the place which easily let air in and able to escape an adverse wind. In "*Feng-shui*" theory, this was regarded as "the place which put the wind away in order". In "*Feng-shui*" theory, it is verified both where the mountains was stretched and flowed in which shape? And then it was decided both which part of the mountain was bended and which direction was seen. The waterway between mountains is important too. The place to intersect the mountain with the water is real ideal spot. A low mountain rise behind the village

which appear as embraced the bottom of mountains, the front brook which round the country and flow are the model of an ideal spot.

Hoeun's old house of *JU-SIL* village released so many talented men and especially has been recognized as released scholars at many fields. The rich Choi family remained the *JIN SA* (means for successful candidate) for 9 generations and *MAN SEOK* (means for millionaire) for 12 generations during Cho-sun dynasty. The rich Choi family is not only rich family but also integrity and clean-handed.

I think as I studied this treatise the primary factors to be distinguished family need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the connection of school, marriage as well as geographical factor.

Accordingly I was willing to compare and analyze these two distinguished family's geographical location and similarity.

The scope of this study is based on Hoeun's old house in Young Yang and the rich Choi family in Gyeong-Ju as well as *Moon Pil Bong* (the mountain peak) which is basic geographical location at distinguished family and *SA SIN SA*.

Besides I studied the water polo of old house, location and structure of house and appeared scholar from distinguished family.

I study this treatise "consideration of topographical favorable location at distinguished old house in Young Nam region" using some publications related with geographical location, seeing the place of the rich Choi family house and using the internet. As studying the career, precept and appeared famous man of distinguished and rich family, synthetically I analyzed and studied.

Two distinguished family has An-san and Ju-san looking at their house and that is best geographical location. In case of Jusil Village, it can see *Moon-Pil-Bong* which is the best geographical location and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people in Jusil live receiving the natural power from *Moon-Pil-Bong*. At the case of the rich Choi family, it is called some summits affects to their wealth.

One more important thing, these distinguished family has their own family precepts. Han-yang Cho family in JU-SIL village has *SAM BUL CHA* (means do not lend at three items) of fidelity and wisdom as their family precepts. The rich Choi family in Gyeong-Ju has the Six precepts inherited the mind of saving and thrift. There is their

philosophy at the formation of distinguished family with wealth and knowledge

As a result, there is a good *Moon-Pil-Bong* at geographical features which has produced a great scholar. Like this, the formation of distinguished old house needs '*MYEONG-DANG*' which means the best geographical location.